

민족문학작품과 서사시제*

高永根 **

I. 들어가기

한글 창제 이후만 대상으로 하여도 여러 갈래의 문학작품이 창작되어 왔다. 신화, 민담, 전설 등의 구비문학에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훨씬 불어난다. 작가가 사건을 체험하여 그것을 한 편의 작품으로 재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면 줄거리를 세우고 등장인물이 배치되어 한 편의 작품이 이루어진다. 한 작품은 서술자(敘述者)¹⁾의 말씨와 등장인물의 말씨로 구성된다. 서술자는 기록문학²⁾에서는 작자가 되겠고 구비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야기꾼으로 불러 왔다. 일단 기록문학에 국한할 때 서술자의 말씨는 그 나름의 정형화된 틀을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이란 같은 사건을 소재로

*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 필자는 지난 15년여 동안 자료 수집에서부터 이론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조동일(서울대), 조남현(서울대), 이인영(서울대), 김종철(서울대), 김한식(중앙대), 강창우(서울대), 이순례(서울대), 이카라시(동경외대), 김유중(서울대), 정병설(서울대), 김영순(인하대), 김정남(경희대), 권보드래(동국대), 이지영(한중연), 박소영(서울대), 왕단단(서울대), 고병량(Leipzig) 등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입었다. 이에 고마운 인사를 표하는 바이다.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이 곳의 ‘서술자’는 독일어의 ‘Erzähler’, 영어의 ‘narrator’에 해당한다. ‘설화자’라 부르기도 하나 ‘서술자’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지영(2002)에서는 서술자와 설화자를 구별한다. 후자는 ‘화자·청자’의 관계로 규정되고 전자는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 2) ‘기록문학’이란 문자로 기록된 문학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옹(1982)/이기우·임명진(역)(1982)의 ‘문자문화’(literacy)와 겹치는 면이 있다.

한 소설과 역사서를 시상법³⁾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소묘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소설가 박종화의 대하역사소설 『임진왜란』⁴⁾의 한 구절이다.

- (1) 송상현은 하회를 좀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어느덧 으스름달은 중천에 떠
울렸다 산과 골짜기와 들엔 담담한 묵화를 쳐 놓은 듯 부유스름한 잣빛 같
은 달빛이 흘렀다. 동래 금정산에도 달빛은 산등성에 비쳤다. 천년 묵은
범어사의 맑은 종소리도 창황한 왜병의 변을 만나서 소리마저 멎었건만 소
쩍새 소리와 뼈죽새 울음소리는 드물게 일어나는 “폐행”하는 종소리 속에
서도 아직도 한많은 울음을 울어 댄다(『임진왜란』 2, 247-48쪽).

위의 (1)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492년 4월 13일 다음날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이 경상감사 김수의 구원병을 기다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종결형을 대상으로 할 때 시제형태가 모두 5개인데 그 중 직설법 현재형⁵⁾은 마지막 ‘울어 댄다’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직설법 과거형이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울어 댄다’도 1)~4)와 보조를 맞추어 ‘울어 댔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곳에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해도 독자들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과 같은 문학작품의 시상법은 비문학류, 이를테면 역사서와 비교하면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 (2) 1592년(선조 25년) 4월에 약 20만 명의 왜군이 부산을 침략하였다. 뜻밖에 적군을 맞이한 부산의 군민(軍民)들은 첨사 정발(鄭撥)의 지휘 아래 장렬하게 싸웠으나 성은 끝내 함락당하고 말았다. 부산을 유린한 왜군은 동래성으로 밀려 들었다. 이곳 군민들은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의 지휘 아래 치열하게 항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다(『다시 찾는 우리 역사』 312쪽).

3) 이곳의 ‘시상법’(時相法)은 ‘시제(Tempus), 동작상(Aspekt), 서법(Modus)’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제’라는 용어로써 ‘시상법’을 대신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2004/2007: 463)을 보라.

4) 2004년 9월 6일 주식회사 ‘이끌리오 달궁’에서 발행한 박종화의 『임진왜란』 전 10권을 가리킨다.

5) 이곳의 ‘직설법, 회상법’ 등의 서법체계는 고영근(1965/1999: 151)에 기대었다.

위의 (2)는 사학자 한영우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⁶⁾에서 뽑은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시제 종결형이 5개이지만 어느 것도 현재형으로 바꿀 수 없다. ‘임진왜란’이라는 같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였지만 문학작품이나 사실기록의 역사서나에 따라 시상법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로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이 일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제보텍스트는 현재로 나타난다.⁷⁾

(3) 갈무리된 말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나라(겨레)에 붙은 모든 사람에 공통적이다. 따라서 한 나라(겨레)의 사람들은 이 공통된 말의 구조에 이끌려 어떠한 공통된 정신, 생각,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나라(겨레)의 얼(정신)이요, 마음이요, 생각 방식이다(허웅, 『언어학』, 샘문화사, 1981: 52).

밀줄 그은 (3)은 ‘아니었다, (공통적)이었다, (방식)이었다’로 바꿀 수 없다. 과거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2)와는 반대이다.

일기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설설명법 ‘하다’(뒤에 나옴)로 나타남이 보통이나 현재형 ‘한다’와 섞여 쓰일 수 있다.

(4) 맑다. 두계(斗溪)가 오다. 진단학보 제1권이 나왔다(문면 부분 수정)(이병기, 「日記抄」, 『가람文選』 신구문화사, 1966, 130쪽).

첫 머리에는 직설법 ‘하다’로 나타나나 뒤에는 직설법 과거형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설법 현재형이 나타날 수 있다.

(4)', 흐리다. 싸락눈이 오고 굵은 눈이 온다. 오후 5시 백합원에서 고(故) 소월 김윤식군의 추도회를 여는데 참석하다. 모인 이가 40여 명 추도사를 하다(문면 부분 수정)(위와 같은 책, 131쪽).

6) 1997년 경세원에서 나온 초췌본을 이용하였다.

7) 텍스트 유형에 대하여는 고영근(1999나: 252-268)을 보고 텍스트 유형에 다른 시제의 분포에 대하여는 김홍수(2005)를 보라.

두 번째 문장이 직설법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

우리 민족어에는 시제를 표시하는 문법형태가 발달되어 있지만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다 쓰이는 일도 있고 그중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시제의 연결을 허락하지 않는 일도 있다.⁸⁾

필자는 1981년에 중세어의 시상법을 체계화한 일이 있는데 다만 단독적 장면([-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기본서법 형태소에 대하여는 그 시제적 기능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다.⁹⁾ 이곳의 단독적 장면은 서술자의 언어인 지문(地文)이 사용된 장면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상관적 장면은 등장 인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뜻한다. 그리고 민족어 시상법의 지역적 내지 역사적 시상법의 변종을 총체서술하는 자리에서도¹⁰⁾ 나라 안팎의 관련 저술만 들고 단독적 장면에 나타나는 시상법의 성격 규명은 숙제로 남겨 두면서 문학연구나 텍스트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방면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본고는 위의 작업을 수행할 때 미루어 두었던 숙제를 풀어 본다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다.

우선 현대의 남북의 소설작품을 대상으로 단독적 장면의 시상법을 규명하고 차례로 개화기, 중세 및 근대의 한글자료에 나타나는 시상법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필자는 지문의 시제를 밝힐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정리하고 이와 함께 나라 안팎의 연구동향을 점검함으로써 연구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문은 화자가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3인칭 서사물(Erzählung)에 속한다.¹¹⁾ 서사물에 사용된 시상법은 ‘서사시제’(erzählende Tempus)라 불러 작업에 임하기로 한다.¹²⁾

8) 이를테면 “준비한 야채를 곱게 다져 팬에 각각 볶아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다”와 같은 호소텍스트는 두부 스테이크를 만드는 법을 설명한 한 구절인데 역시 과거 시제형 ‘간했다’로 바꿀 수 없다. 형태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후춧가루로 간 하라’라는 명령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9) 고영근(1981/1998: 213, 216)을 보라.

10) 고영근(2004/2007: 72, 574-75)을 보라. 필자는 앞 책의 ‘머리말’에서 서사물의 시상법을 다루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는 여운을 남기기도 하였다(p. vii).

11) 관련 논의는 프랭스(1982)/崔翹圭(1988: 28)을 보라.

12) 서사문학의 개념에 대하여는 의견이 구구하다. 최근의 이 방면의 논의는 정향균

우리 민족어 문학작품의 서사시제에 대한 관심은 정렬모(1946: 127)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렬모는 “충무공이 외적을 이김”에 나타나는 ‘이김’을 ‘현재꼴’이라 규정하고 ‘지나간 사건’을 표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일일이 과거꼴을 쓰기가 귀찮거나 또는 특히 가상(假想) 현재로 보는 편이 흥미가 깊을 경우에 쓴 것”이라고 하여 ‘현사법(現寫法)’이라 불렀다. ‘이기다’와 같은 직설법을 들었다면 몰라도 명사형을 예로 든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조선어문법』(1960: 316)에서는 (1)과 같은 예문을 들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바로 눈 앞에 보는 듯이 묘사함으로써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을 매우 생기있게 만든다”고 말하고 이를 ‘역사적 현재’라 불렀다. 필자는 현대어의 서법체계를 세우는 자리에서¹³⁾ (1)과 같은 예문을 들고 과거의 사실을 좀더 생생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역사적 현재’로 해석한 바 있다. 필자는 동사에 바로 붙는 ‘-다’를 직설법으로 처리하되 현재, 과거,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그로부터 10여년 후 서정수(1976: 116)에서 우리 민족어의 현재시제형을 ‘C’로 표시하고 과거상황이 주어지면 과거사의 서술에 쓰일 수 있다고 말하고 일본어의 현재형 ‘V-u’에 대하여도 같이 해석하였다.¹⁵⁾ 이전의 역사적 현재와 같으나 그 사용제약을 명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과거상황이 뒤에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언급이 없다.

1980년대 중반에 미주의 한국어학자 루코프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루코프(1986)에서는 브론츠웨어(1970)에 기대어 우리 민족의 현대문학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 부딪히는 시상법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앞의 (1)과 같이 시제교체가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2)와 같이 불가능한 예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자를 이동적 용법(customary), 후자를 관습적 용법(customary)이라 불러 우리 민족어의 서사시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곧 김정

(2000), 강현국(2003)을 보라. 그리고 서사시제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바인리히(1964/2001)로 미룬다(뒤에 나옴).

13) 고영근(1965/1999가: 8-69)을 보라.

14) 동사에 붙는 ‘-다’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다. 고영근(2006)과 임홍빈(2007)을 비교하여 보라.

15) 서정수(1976)의 견해는 서정수(2006: 275-77)에 더 부연되어 있다.

남(1993)에서 비판을 받게 되지만 루코프는 서사적 상황에서도 지시성을 대동하는 구문에서는 상담적 상황과 같이 시제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바로 뒤이어 정희자(1987)에서는 역사소설, 민담, 단편소설 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배경정보(ordinary background information)에서는 과거시제로, 중요한 배경정보(significant background information)에서는 현재형이 사용된다고 말하고 시제형 교체조건을 명세하였다. 한 때 서사시제의 현재형을 배경정보의 성격과 관련시키기도 하였으나 이인영(199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김정남(1993)에서는 루코프와 정희자의 업적을 발판으로 삼되 시제를 정보와 관련시키는 정희자(1987)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시상법의 교체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갈라 보았다. 전자는 관습적 용법으로, 후자는 이동적 용법으로 보았다. 특히 관습적 용법에서는 지시성이 포착되는 구문은 시제의 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지영(2002)에서는 플라이쉬맨(1990)의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와 서사적 현재(narrative tense)가 민족문학작품의 서사적 문맥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서사문맥의 현재시제는 일상어와는 달리 유효적이고 과거시제는 무효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사적 문맥에서 현재시제가 표시되는 현상을 ‘의식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 서사시제에 대하여는 일본의 한국어학계에서도 주목된 바 있다. 하마노우에(1992)에서는 앞의 정희자(1987)와 같이 과거시제형을 전경과 배경에 관련하여 다루었고 하마노우에(1994)에서는 비과거형이 오히려 유효적이고 과거형이 비과거형으로 바뀌는 것을 연극적 잠재력과 관련시켰다.¹⁶⁾ 요컨대 서사시제에 있어서는 앞의 (1)과 같이 현재시제가 유효적, 과거시제가 무효적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무효적/유효적이라는 도식만으로 민족어 문학작품의 서사시제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문학작품은 지문시제의 사용 제약을 밝히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으나 중세어는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정도의 인식에서

16) 서사적 상황에 나타나는 직설법 현재시제에 대하여는 김홍수(2005)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볼 수 있다.

거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세어 문법가는 대화문과 지문에 나타나는 형태를 동일시하여 같은 층위에서 처리하여 왔다.¹⁷⁾ 전일 필자가 대화와 지문에 나타나는 형태를 가려 낸 것은 중세어의 서사시제를 밝히기 위한 기반 구축이었다.¹⁸⁾ 이 자리에서 필자는 지문 곧 [-상관성]에 나타나는 시제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문체론이나 텍스트 분석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 분명한 해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주를 통하여 뒤에서 언급할 바인리히(1977)를 연용하였으며 고영근(1998: 216)에서는 국내의 이 방면 연구 업적을 소개한 일이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한국어학계의 업적인 이토(1994)에서 필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흐느다’와 ‘흐다’의 분포를 대화와 지문에 걸쳐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먼저 우리 민족의 현대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서사시제를 밝혀 보려고 한다. 현대문학작품은 남북과 재외 교민사회에서 창작된 작품을 가리킨다. 이어 중세 및 근대의 한글자료를 대상으로 서사시제의 형성과 변천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주로 문학작품에서 실현되는 우리 민족어의 서사시제를 총체서술하고자 한다.¹⁹⁾

II. 서사시제 논의를 위한 기초적 문제

필자는 고영근(1965/1999가: 168)에서 현대 민족어의 서법체계를 세울 때, 특히 종결평서형을 지문과 대화로 나누어 그 기능적 특수성을 가려 낸 바 있다. 고영근(1976/1999가: 303)에서는 수신자를 다섯 갈래로 나누되 수신자

17) 대표적으로 혀웅(1975: 877-905)의 ‘때매김법’에는 대화와 지문에 나타나는 시상법 관련의 형태를 섞어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회상법 ‘-더-’가 그러하다. 한재영(1986)에서는 양자를 통합하는 근거가 더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일상어의 화자와 서사물의 서술자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 고영근(1981/1998, 1982/2004: 163-212)을 보라.

19) 필자는 고영근(1993)에서는 지역별, 시대별로 분화되어 있는 우리 민족어의 모든 문법현상을 총체서술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고 고영근(2004/2007)에서는 시상법을 총체서술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를 직접 의식하지 않는 장면을 ‘단독적 장면’이라 부르고 수신자를 직접 의식하는 장면을 ‘상관적 장면’이라 부른 일이 있으며,²⁰⁾ 이러한 장면의 체계는 고영근(1981/1998: 5)에서 ‘단독적 발화장면’과 ‘상관적 발화장면’과 같이 문구수정이 가미되어 중세어의 시상법 체계를 마무리한 일이 있다.

지난 60년대 중반부터 서사시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참고의 대상이 되는 업적은 바인리히(1964/1977: 18-21, 2001: 29-33)이다.²¹⁾ 바인리히는 시제(Tempus)를 크게 시제군 I(Tempus Gruppe I)과 시제군 II(Tempus Gruppe II)로 나누고 전자에는 독일어의 현재(Präsens), 완료(Perfekt), 미래(Futur)와 미래 II를 넣었고 후자에는 독일어의 다른 시제, 곧 과거(Präteritum), 대과거(Plusquamperfekt), 조건법(Konditional)을 넣었다. 그러는 한편, 바인리히는 시제군 I에 대하여는 ‘상담시제’(相談時制)(besprechende Tempora)²²⁾로, 시제군 II에 대하여는 ‘서사시제’(敍事時制)(erzählende Tempora)로 해석하였다. 다른 한편, 바인리히는 두 시제가 실현되는 장면을 ‘세계’(Welt)라 불러 상담시제를 ‘상담된 세계의 시제’(Tempora der besprochenen Welt), 서사시제를 ‘서사된 세계의 시제’(Tempora der erzählten Welt)라 불렀다.²³⁾

20) 당시 필자가 참고한 문법서는 정렬모(1946)이었다. 이 책에서는 지문과 같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사물에 대하여 단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홀로가름’이라 하였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경우는 ‘더불가름’이라고 하여 수신자를 둘로 나누었다. 정렬모가 세운 두 갈래의 수신자는 언어학연구실(1961: 280)에서 청자(듣는 사람), 청중, 독자의 셋으로 분류되어 있다.

21) 이 책은 1964년의 초판 아래 6판을 거듭하였다. 제2판은 1971년에 나왔는데 많이 고쳤다. 2001년에 나온 6판은 출판사도 바뀌고 내용도 6장 ‘Relief im Satz’가 삭제되는 등 변동이 많다. 이곳에서는 1977년판을 이용하되 변동이 있을 때에는 6판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 책은 그 사이 스페인어(1968), 프랑스어(1973), 이탈리아어(1978), 일본어(1982)로 번역된 바 있다(6판 머리말 참조). 그리고 바인리히의 시제이론은 바인리히(1970)의 “Time and Tense”를 통하여서도 그 얼개를 알 수 있다.

22) 바인리히(1970)에는 ‘besprechende Tempora’가 ‘commentary’(discursive speech)로 번역되어 있다.

23) 바인리히(1964)에 대하여는 많은 서평이 나왔다. 사우베커(1968)에서는 비인도유럽어인 Hopi어 가운데는 일상어를 이야기할 때와 신화(Mithen), 역사(Geschichte)를 이야기할 때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동사범주가 사용되며 인디안 언어에서는 회화(Unterhaltung, conversation)와 서사(Erzählung, narration)에 각각 독립된 동

바인리히의 시제체계는 텍스트언어학에 근거한 독일어문법인 바인리히(1993: 198-239)에 전면적으로 응용되어 있다. 바인리히는 두 시제의 대립을 ‘발화 행위’(Sprechhaltung)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상담시제는 수신자(청자)에게 ‘긴장’(Gespanntheit)을 유발시키고 서사시제는 수신자에게 긴장을 풀어 주는, 곧 ‘해이’(解弛)(Entspannung)²⁴⁾시키는 것으로 보았다.²⁵⁾

필자는 이미 ‘대화’와 ‘지문’을 ‘상관적 발화장면’과 ‘단독적 발화장면’으로 수정·확대하여 현대어와 중세어의 시상법을 논의하였다고 하였다.²⁶⁾ 바인리히의 ‘발화행위’는 사태의 성격을 반영하는 필자의 ‘통보행위’의 양방성과 일방성에 일치한다. 바인리히의 ‘세계’란 필자의 ‘장면’을 달리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단독적’과 ‘상관적’이라는 표현은 시상법뿐만 아니라 두 장면에 실현되는 문법현상을 모두 포괄하는 데는 적절한 개념이라고 하겠으나 시상법만을 가리키는 데는 그 외연이 너무 넓다고 보아 바인리히의 견해를 따라 ‘상관적 발화장면의 시제’는 ‘상담시제’로, ‘단독적 발화장면’의 시제는 ‘서사시제’로 바꾸기로 한다.

우리 민족어의 서사시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늦게 표명되었음과 보조를 같이하여 국제학계에서도 이 방면 연구가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 없다. 서사시제에 대한 연구는 전후 독일어 사용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²⁷⁾ 뮐러(1947)는 본(Bonn) 대학 정교수 취임연설인데 서사문학(Erzählkunst)의 시제

사범주가 확인된다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샤우베커는 각 언어에 있어서 세계를 서술하는 동화, 전설, 역사서술, 로망, 소설에서는 부차시제가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폴라크(1968)은 100여 쪽에 달하는 일종의 서평논문이다. 이밖에도 Hiltiy, Heger, Togeby, Nickel, Schmidt 등 모두 7편의 서평이 있다.

24) 독일어의 ‘Gespanntheit’과 ‘Entspannung’은 바인리히(1970)에 ‘tension’과 ‘relaxation’으로 번역되어 있다.

25) 카스파리스(1975: 14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바인리히(1964)와 같은 해에 나온 조오스(1964)는 전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기능으로 양분하는 태도는 바인리히의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조오스의 견해는 바인리히와 비교할 때 영향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26) 고영근(1965/1999, 1976/1999, 1981/1998)을 보라.

27) 관련 정보는 파스칼(1962)의 각주 1)을 보라.

를 처음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뮐러는 ‘서사’(Erzählen)를 수신자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건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시간의 의미를 다각도로 탐색하였다. 뒤이어 함부르거(1957/1968)에서는 1950년대 전반에 쌓은 몇 편의 논문을 종합하여 『문학의 논리』(die Logik der Dichtung)를 저술하였다. 그는 전통적 삼분법(Lyrik, Epik, Dramatik) 대신 ‘허구적/모방적’(Epik ohne Ich-Roman)(Dramatik)과 ‘존재적’(existential)(Lyrik, Ich-Roman)인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어학(Sprachwissenschaft)과 문학(Literaturwissenschaft)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²⁸⁾ 함부르거(1967)에서는 이를 대폭 개편하여 픽션에서 문제되는 시간성과 역사적 현재에 대하여 그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픽션이나 서사시(Epik)에서의 과거시제는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S. 62) 시간과 공간을 표시하는 지시부사는 지시적 기능이 상실된다는 등 이전의 시제연구에서 미치지 못하였던 새로운 면을 많이 부각시켰다. 특히 픽션의 과거시제가 진정한 과거가 아니라는 언급은 그 뒤의 서사작품의 시제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밴비니스트(1959/1966)/황경자(1992: 336-360)에서는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더라도 앞의 (1), (2)의 텍스트와 같이 시제가 달리 선택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밴비니스트의 위의 책은 일본의 구도(1995: 23)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르땡(1971)은 기욤(1929/1970/1992)²⁹⁾과 기타 관련 업적을 이론적 기저로 삼아 중세 프랑스어의 서사시제를 다룬 것이다. 이밖에도 당시까지 나온 시상법 관련의 중요 업적, 이를테면 Agrell, Koschmieder, Hjelmslev, Bally, Heger, Benveniste, Dubois 등의 업적이 인용되어 있다. 인도 유럽어에서는 서사시제를 중세의 서사물에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관련 업적이 나오지 않은 것은 반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카스파리스(1975)는 영어사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바인리히의 시제이론을 영어에 적용함으로써 시제해석에 있어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였다. 영

28) 함부르거(1957)에 대하여도 두 편의 서평, 곧 쉬탄첼(1959), 파스칼(1962)가 있다. 위의 두 서평은 함부르거의 시학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9) 기욤의 언어이론은 朴亨達(1987)과 기욤 著/ベル郎 監修/朴亨達譯註(2001)를 보라.

미비평은 독일어 사용권에 비하여 문학작품의 시제기능에 대하여 관심이 적다고 밀하고 시제류가 실현되는 발화상황(speech situation)을 ‘준상담적’(quasi-discursive), ‘서사적’(narrative), ‘준서사적’(quasi-narrative), ‘상담적’(discursive)인 부류로 나누어 시제형태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이는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수신자에 따른 다섯 가지 발화장면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참고할 만한 분류법으로 보인다. 카스파리스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적 현재’란 말 대신에 ‘narrative tense’란 말을 쓸 것을 제안하였다. 구술 중심의 역사적 현재와 문자 중심의 역사적 현재가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정신문화연구원(현재의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시제가 기록문학의 서술자의 시제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³⁰⁾

브론츠웨어(1970)에서는 구조언어학 내지 후기 구조언어학의 지식으로써 문학텍스트를 분석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문학어와 비문학어의 관계를 논의하고 ‘continuum theory’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자의 관계가 칼로 자르듯이 경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언어학적 기술이 문학작품의 분석에 유용하기는 해도 모두 해결되지 않으며 ‘전경’(foreground)은 ‘일탈’(deviation)과 동의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시제로 일관하다가 현재시제로 바뀌는 현상을 일탈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곳의 ‘일탈’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유표적’이란 말과 동의어이다. 자유간접화법,³¹⁾ 미래 시간부사와 과거시제의 공존을 소설 안의 시간과 소설 밖의 시간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군데군데 바인리히(1964)의 시제체계를 소개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시간부사를 상담시제와 서사시제에 따라 분류한 것은 바로 자유간접화법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민족의 문학작품의 분석에 참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민족어의 시간부사로 대치하면 다음과 같다.

30) 이지영(2002)가 이런 태도로 민족문학의 서사시제를 다루었다.

31)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정보는 토도로브(1973)/곽광수(역)(1977: 63), 리몬-케논(1983)/崔翹圭(역)(1985: 161-170)을 보라.

(5) 텍스트 유형과 시간부사

I	II
지금	당시
오늘	그때
내일	다음날, 이튿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내년	이듬해

비서사적 텍스트에서는 부류 I의 부사는 정상적이나 부류 II의 부사는 비정상적이고 서사적 텍스트에서는 부류 I의 부사가 비정상적이라는 견해를 통하여 우리는 시간부사가 텍스트종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브론츠웨어는 소설의 시제 사용은 서술 시점³²⁾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태도 표시와도 관련이 있고 픽션과 시가에서 중요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사시제의 연구에서 참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벨로스(1978)이다. 벨로스는 서사시제를 ‘서사적 절대적 시간’(narrative absolute tense, NAT)이라 부르고 서사문에 사용된 시제가 변칙적이라고 인식되어 온 그 동안의 관행을 밴비니스트(1959)와 바인리히(1964)에서 규칙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역사적 현재의 해석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를 활용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서사적 절대시제는 서사 담화(narrative utterance)의 불확실한 화용론의 표면적 실현이며 사회적으로는 방언적이라고 하였다. 벨로스는 앞의 샤우베커(1968)와 같이(각주 14), 미주의 인디언어인 Menomini어와 Peruvian 인디언어는 서사적 서법(narrative mood)을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영어의 서사시제에는 그런 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디언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누어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아이누민족은 구비서사시를 유카르(yukar)라고 하는데 일상 구어와는 다른 특이한 어법을 사용한다고 한다.³³⁾ 각 민족의 서

32) ‘시점’에 대한 포괄적 설명은 조남현(2004: 126-39)을 보고 담화유형과 시점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김홍수(2004)를 보라.

33) 조동일(1997: 151)에 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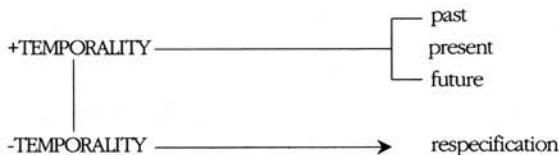
사물에 나타나는 서사적 서법은 근대 이전의 우리 민족의 문학작품의 서사 시제를 논의하는 데에 참고되며 특히 서사시제의 범언어적 유형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자료로 보인다(뒤에 나옴). 쉬프린(1981) 역시 서사시제 연구의 중요 업적이다. 역사적 현재는 단순히 과거시제를 대치하는 문체적 장치라고 하였다.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현재는 화자가 그들의 경험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문법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리쾨르의 『시간과 이야기』 3부작(1983, 1984, 1985)은 서사시제 연구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루는 대 저작이다. 리쾨르는 시간이라는 주제와 시제라는 형식을 한데 아우르는 통합이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리쾨르는 철학적 해석학의 넓은 틀 속에서 시간의 아포리아에 대해 이야기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시간은 근본적으로 “화음을 이루는 불협화음”이고 이야기는 “불협화음을 내는 화음”으로서 시간의 단일성, 전체성, 비가시성 등의 아포리아에 대한 서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리쾨르는 이야기를 정태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활동(재현활동)이라는 역동성으로 파악한다. ‘삼중의 미메시스’(미메시스 1-전 형상화/미메시스 2-형상화/미메시스 3-재형상화)라는 개념도 거기서 비롯된다. 또한 이야기를 대상지시 차원에서 허구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로 구분하는 것도 구조주의 서술학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리쾨르는 ‘제3장 시간과의 유희’(『시간과 이야기』 2)에서 벤베니스트, 함부르거, 바인리히 등의 견해를 종합하여 서사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바인리히의 상담시제와 서사시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전자가 긴장된 태도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완된 태도로 파악된다고 한다. 제4부 ‘이야기된 시간’(『시간과 이야기』 3)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후설의 시간성에 대한 논쟁을 개관하고 하이데거의 통속적 시간개념을 검토한 다음, 역사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가 교차하는 대상지시라는 개념으로 시간론과 이야기론의 종합을 시도한다. 리쾨르가 서사시제의 시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자들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끌어들인 것이 서사시제를 해명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테면 바인리히의 서사시간은 여러 나라말로 번역되고 그것을 실

제의 문학작품에 응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바쉬(1986)는 인간의 통보행위를 일상적 통보행위(the normal, referring mode of communication)와 허구적 통보행위(the fictional mode of communication)로 구별하여 허구(fiction)에 나타나는 시제와 동작상을 다루었다. 두 통보행위는 필자의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이나, 바인리히(1970)의 ‘상담적’과 ‘서사적’ 태도와 비슷하며 라이온스의 ‘역사적(historical)’ 및 ‘경험적’(experiential) 기술방식과 비슷한 면이 있다. 바쉬는 양자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문법은 직접적으로는 문체론에 관심을 두지 않으나 문체적인 차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틀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비치었다. 시제는 본질적으로 지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구분이 가능하나 지시성이 결여된 서사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를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간성’(temporality)의 있고 없음(有無)을 기준으로 하여 상담시제와 서사시제를 한 그릇에 담는 다음과 같은 통합이론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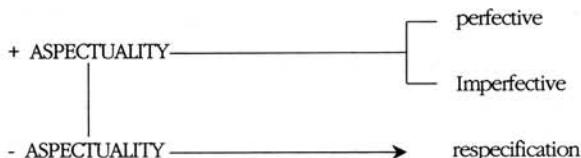
(6) 일상시제와 서사시간의 통합



‘respecification’은 서사시제에 대하여는 상담시제와 달리 그 나름의 시제적 질서를 다시 규정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바쉬는 동작상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방식의 통합이론을 세웠다.

(7) 일상 동작상과 서사 동작상의 통합



두 종류의 시제와 동작상을 통합기술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는 문법체계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달려 있어 보인다. 바쉬는 같은 동사라도 대화에 쓰이느냐, 지문에 쓰이느냐에 따라 동작류가 달리 파악된다는 점도 지적하였으며 허구시제의 특징도 거론하였다. 바쉬 역시 이전의 다른 문법가들과 같이 바인리히(1970)를 발판으로 삼되 영어의 핵심의 시제와 동작상을 통합하는 모형을 보여 주고 있다. 바쉬는 (6)과 (7)을 통하여 서사시제에 나타나는 시제와 동작상을 문법에 끌어들이는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가 서사시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서사시제를 문법에 끌어들이는 시도의 한 고리임은 물론이다.

프라이쉬맨(1990)은 언어학과 문학의 엄격한 분리를 완화할 목적으로 중세 로망스 문학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을 대상으로 서사 문학작품의 시제를 다룬 것이다. 그는 시간자질을 발화시(S), 참조시(R), 사건시(E)를 세운 Reichenbach를 비판하면서 시제를 담화-텍스 충위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프라이쉬맨은 문학이론가는 문학작품의 전국적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고 언어학자는 작품의 내적 구조에 주목한다고 하였으며 지문에서는 지시성이 상실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필자가 중세어의 지문에 나타나는 시상법 형태에 대하여 정확한 시제성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모두 지시성과 관련되었다(앞에 나옴). 프라이쉬맨은 밴비니스트와 바인리히의 서사시제와 상담시제의 용어를 비교하는가 하면 이야기하는 시간(speaker now)과 그 이야기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상정하는 시간(story now)를 구별하였다. 이밖에 시제의 교체를 전경과 배경에 관련시켜 해석하는 면도 보인다. 앞에서 소개한 정희자(1987)과 비슷한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김홍수(2005)에서도 보인다.

이인영(1993)은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역사적 현재’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동작상과 역사적 현재, 양태(modality)로서의 역사적 현재를 다루었고 역사적 현재와 관점의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역사적 현재를 자유간접화법(의사직접화법)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이인영은 역사적 현재는 담화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텍스트 형성상의 기능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인영은 역사적 현재를 전경화와 관련시켜 해석

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두드러지게 하기’라는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였다.³⁴⁾ 역사적 현재를 영화 내레션에 있어서의 몽타쥬 기법에 비유하면서 일종의 ‘낯설게 하기’에 의한 클로스업을 통하여 인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서사시제를 설명하는 데 가장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뒤에 나옴). 케느필(1995)은 텍스트유형에 따라 영어의 동작상이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앞에서 든 (1), (2), (3), (4)는 텍스트유형이 다름에 따라 시제가 달리 표시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민족어의 경우, 현재까지 텍스트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시상법을 논해 왔다. 텍스트언어학이 수용되어 그 성과가 많이 쌓여 있는 마당에 이제는 텍스트유형에 따른 문법형태의 분포와 기능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도(1995) 역시 텍스트 유형에 따른 시제의 기능을 구명하였다.

III. 현대 민족어 소설과 서사시제

이상과 같이 서사시제를 논한 외국의 중요 업적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곳에서는 먼저 앞에서 부각시킨 이론적 문제점을 기반으로 삼아 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남북과 재외 교민의 민족어 소설을 중심으로 서사시제의 면모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민족어 문학작품의 서사문법³⁵⁾의 한 국면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20세기 전반부터 작품활동을 한 소설가 황순원의 「소나기」(1952)³⁶⁾의 앞 부분에서 뽑은 것이다.

(8)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장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

34) 이인영(1993)에서는 Chvany가 ‘전경화’의 의미를 ‘연쇄성, 중요성, 드드러지게 하기’의 셋을 들었다고 말하고 역사적 현재의 전경화의 기제로는 ‘두드러지게 하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35) 서사문법에 대하여는 프랭스/崔翹圭(역)(1982: 122-156)을 보라.

36) 출전은 삼성판 『韓國現代文學全集』 15(1978)이다.

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 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소나기」 306쪽)

(8)은 「소나기」의 첫머리 다음 부분에서 따온 텍스트이다. 문장종결형이 직설법 과거형과 직설법 현재형이 교대로 실현되어 있다. ‘이었다’와 ‘버렸다’는 직설법 과거, ‘하고 있었다’는 직설법 과거진행형이다. ‘하고 있다’는 직설법 현재진행형이고 ‘기다리자는 것이다’는 관형구성에 의한 직설법 현재형이다. 이런 경우, 직설법 과거시제로 일관하여도 독자들은 그것이 서사문법에 어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시제로 통일되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는 형태만 시제형이지 시제의 고유한 특성인 지시성이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형과 과거형이 기능적인 차이가 없이 교체된다는 것은 서사시제는 문체적인 효과 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든 (1)의 예와 같은 성격의 서사시제이다. 이곳에서 주목할 것은 서사물인데도 화자 시점의 부사와 서술자 시점의 부사가 섞여 있다. 지문은 서술자의 말이기 때문에 부사도 서술자 시점의 부사가 와야 한다. ‘어제, 오늘’은 화자 시점인데도 서술자의 말씨에 나타났고 ‘다음날’은 서술자 시점의 부사이다. 전형적인 자유간접화법인 셈이다. 앞의 시제형의 교체와 함께 두 시간부사가 교체되어도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앞의 이인영(1993)에서 본 역사적 현재를 자유간접화법과 관련하여 해석한 것이 우리 문학작품에 거의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나기」에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일관하는 것도 있고 과거형으로 일관하는 것도 보인다.

(9) 가.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 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소나기」 306쪽).

나. 산마루께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우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

고 있었다(「소나기」 309쪽).

(9가)는 전체가 직설법 현재형으로, (9나)는 직설법 과거형과 과거완료형 및 과거진행형으로 일관하고 있다. (9가)를 모두 ‘내었다, (허탕)이었다, 움겼다, (모양)이었다’로 바꾸어도 독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사문법의 한 국면을 확인할 수 있다. (9나) 역시 ‘올라간다, 모여 있다, 걸터앉는다, 같다, 퍼뜨리고 있다’로 교체하여도 작품이해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제 배치법은 20세기 말경에 나온 최명희의 『흔불』(1996)³⁷⁾에서도 볼 수 정도로 보편적이다.

(9나')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거기다가 대숲에서는 제법 바람 소리까지 일었다. 하기야 대숲에서 바람 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굳이 날씨 때 문이랄 수는 없었다. 청명하고 별별이 고른 날에도 대숲에서는 늘 그렇게 소소(蕭蕭)한 바람이 술렁이었다(『흔불』 I 11쪽).

그러나 대화는 지문과 성격을 달리한다.

(9)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근데 이 양산 같이 생긴 노란꽃이 먼지”(「소나기」 309쪽)

위의 (9)는 앞에서 든 작품 「소나기」의 대화의 한 부분이다. 만약 밑줄 그은 활용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바꾸면 대화의 내용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시상법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9'')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모르네. 난 보랏빛이 좋았어……근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꽃이 먼였지”

같은 시제형태가 장면의 성격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것은 바인리히(1964)의 이론을 따르면 통보상황의 ‘긴장’(緊張)과 ‘이완’(弛緩)(앞에 나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사문법의 또 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7) 1997년 도서출판 한길사에서 나온 판을 이용하였다.

해방 후 남쪽에서 나온 소설작품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위와 같은 경향을 발견한다. 그러면 북쪽과 재외교민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10) 어디를 바라보나 눈길이 모자라는 검푸른 바다였다. 수백만대군이 추켜든
창끝마냥 하늘을 찌르고 일어선 상록수밀림이 사방천리 이득한 하늘밑에
까지 완만한 기복을 이루며 밀려 가 있다. 숲머리를 덮은 백설은 창끝에
불린 서리마냥 장엄한 기상우에 위험을 더 보태여준다(『한 자위단원의 운
명』 3쪽).

(10)은 북한의 ‘3대 불후의 고전적 명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한 자위 단원의 운명』³⁸⁾의 시작 부분에서 따 온 것이다. 첫 문장의 ‘(바다)였다’는 직설법 과거형이고 둘째 문장은 직설법 현재완료형, 셋째 문장은 직설법 현재형이다. 북쪽의 서사시제 배치도 남쪽과 차이가 없다. (10)과 같이 두 시제형이 섞이는 것이 많고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일관하는 일도 적지 않게 보인다.

다음은 중국 조선족의 작품에서 따 온 것이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해방 전부터 문단이 형성되어 많은 문학작품이 창작되었으며³⁹⁾ 해방 후에도 문학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다.⁴⁰⁾ 이곳에서는 『연변문예』(1954년 5월호)에 발표된 김창걸(1911~1991)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⁴¹⁾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 민족문학 작품의 서사시제의 사용양상을 엿보기로 한다.

- (11) 가. 상훈이는 들릴락 말락 좋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홍당 무 같이 붉어진 얼굴을 보이기 괴로워 머리를 수그렸다. 뺨에서 경련이 일어났다(「행복을 아는 사람들」 389쪽).
 나. 상훈이는 깨달았다. 五十 만이 아니라 바로 五億 인민이 한 태양 모 주석을 받들고 나간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의 장애를 박차고 나아간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리상을 향하여 씩씩하게 팔을 걷고 나아

38) 1989년 도서출판 黃土에서 낸 영인본을 이용하였다.

39) 해방 전의 만주 지역의 민족문학 연구에 대하여는 蔡壠(1990)을 보라.

40)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옛 만주지역의 민족문학은 전 23권으로 편찬된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자료 전집』(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3)에 집성되어 있다.

41) 이 작품은 앞의 전집 제3집에 실려 있다.

- 간다. 자기도 이 농악 인민 대렬 속의 한사람이다(위와 같은 작품 401-402쪽).
- 다. 리론상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수요에 선뜻 나서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했더라 자기가 곡 고종 교원으로 가는 것이 사회의 수요일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성적이 수수한 사람이 가야할 것이 아닌가?(위와 같은 작품 394쪽)

(11가)는 직설법 과거형으로 일관하여 있다. (9나)와 같은 유형이다. (11나)는 처음 문장은 직설법 과거형, 나머지는 직설법 현재형이다. (1)와 같은 유형의 시제 배치이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나온 작품의 서사시제도 북한은 물론 남한과 차이가 없다. (11다)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일관하여 있다. 심리 묘사란 점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옛 소련의 고려인 사회에서 창작된 김용택의 단편 「그를 어데서 찾는담」⁴²⁾에서 뽑은 서사시제의 사용양상이다. 옛 소련의 고려인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기 전에는 연해주 일대에서 신문 「선봉」 등을 발판으로 삼아 문학활동을 하였으며 강제 이주 후에는 『레닌기치』(지금은 고려일보)를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사할린에서도 『레닌의 길로』 등을 통하여 민족문학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 (12) 가. 신랑집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신랑신부가 들어가는 길 량편에 사람들이 가득하였다. 행복에 찬 신랑은 가볍게 신부를 안고 걸어 들어 갔다. 누이동생들은 그가 가는 길에 꽃보라를 던져주었다(「그를 어데서 찾는담」 84쪽).
- 나. 또다시 사진기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곁에 서있는 차녀가 전 국화묶음속에서 (한)⁴³⁾ 송이 빼어 아버지의 앞가슴주머니에 품 아주었다. 손님들은 떠들썩 웃어댄다(「그를 어데서 찾는담」 82쪽).
- 다. 혼자 애놈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범도 자신도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도가 생각한 바를 고려한다면 또 그렇게 무의미한 일도 아니었다(김세일, 장편 소설 『홍범도』 1,⁴⁴⁾ 133쪽).

42) 이 작품은 김연수 엮음 『在蘇韓人作品集』(1989, 인문당)에서 뽑았다. 이 작품의 연대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해방후 작품으로 보고 인용하였다.

43) 작품집에는 '송이'밖에 나와 있지 않으나 '한'이 빠진 것으로 보고 보충하였다.

(12가)는 (9나), (11가)와 같이 직설법 과거시제로 일관한 텍스트이다. (12나)는 직설법 과거시제가 주축이 된 텍스트에 직설법 현재형이 나타난 예이다. (1), (10), (11나)와 같은 유형의 시제 배치이다. (12다)는 옛 고려인 사회의 항일영웅인 홍범도를 소설화한 작품에서 뽑은 것이다. 앞의 (2)와 같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고 (1)과 같은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형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같은 ‘아니다’인데도 불구하고 앞의 것은 현재형으로, 뒤의 것은 과거형으로 실현되었다.

1950년대 이후의 남북 및 교민사회의 서사시제의 양상은 어디에 뿌리를 들 수 있을까.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고 날이 갈수록 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는 1930년대의 작품인 염상섭의 『三代』(1932)⁴⁵⁾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3) 가. 있는 사람을 따라 다니며 얻어 먹기도 싫다. …… 덕기는 자기를 벗 대 놓고서나 하는 말 같아서 듣기 싫었다.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뺏어 먹고 쓰고 할 것은 다 하면서 계절대고 입비른 소리를 톡톡하는 것이 밥살맞기도 하였다. 있는 사람의 통성으로 자기에게 좀 고분고분하게 굽어 주었으면 좋았다(『三代』 10쪽).
- 나. 덕기는 일어서며 하품 섞인 소리로 대답을 한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와서 부리나케 자리를 개 않는다. 안방 식구는 내다보지도 않는다. 안방식구란 덕기의 서조모(庶祖母) 식구다(이다). 말하자면 서시어머니가 안방에 있을 터이나 덕기의 모친은 건너가 보려고도 아니하고 나 이런 시어머니는 조를 차려서 들어와 보려니 하고 버티고 앉았는지 내다보지도 않는다(『三代』 19쪽).

(13가)는 직설법 과거형이 셋이고 현재형은 첫 머리에 하나만 나와 있다. (1)과는 달리 직설법 현재형이 앞서고 과거형이 뒤에 나와 있다. (13나)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일관하여 있다. (9가)와 같은 배치이다.

20세기 중반에도 작가에 따라서는 서사시제를 직설법 현재형으로 일관하는 일이 더러 보인다. 최인훈의 『광장』(1961)⁴⁶⁾의 첫 머리를 보자,

44) 『홍범도』는 1989년 서울 신학문사에서 나왔다. 『레닌기치』에 1965년부터 239회로 연재되었다(김연수 역은 1989년에 있는, ‘재소 한글 소설가’ 참조).

45) 1959년 민중서관에서 나온 『韓國文學全集』 3을 가리킨다.

(13나')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 석방 포로 이명준(李明俊)은, 오른편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가, 배뒤쪽 난간에 가서, 거기 기대어 선다.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타를 켜했으나 바람에 이내 꺼지고 하여. 몇 번이고 그르친 끝에, 그 자리에 주그리고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당긴다. 그때다(이다). 또 그 눈이다. 배가 며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허깨비다(이다)(『광장 21쪽).

이렇게 현재형으로 계속하다가 조금 나아가면 직설법 과거형과 지그재그로 섞여 나온다. (13나, 13나')와 같이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IV. 『無情』과 신소설의 서사시제

『無情』은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이전의 신소설 및 이후의 현대소설과 일정한 차별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⁴⁷⁾ 그러나 형식적으로 볼 때, 『無情』은 신소설과 공통되는 요소가 많다고 보아 같이 다루기로 한다.⁴⁸⁾

- (14) 가. 형식은 말이 막혔다. 우선은 남의 폐간을 페들어볼 듯한 두 눈으로 형식의 얼굴을 유심하게 들여다 본다. 형식은 눈이 부신 듯이 고개를 숙인다(『無情』 13쪽).
- 나. 밤은 서늘하다. 종로 야시에는 ‘싸구려’ 하는 물건 파는 소리와 길다란 칼을 내어 두르며 약 광고하는 소리도 들린다. …… 사람들은 저녁의 서늘한 맛에 취하여 아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사이로 어린 학생들은 …… 사람들 사이로 뛰어 다닌다. …… 청년들의 그림자가 얼른얼른 한다. …… 가물다가 비가 왔으므로 후끈후끈 흙내가 올라온다(『無情』 91쪽).

46)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4판 54쇄(2008)를 이용하였다.

47) 『無情』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하여는 趙演鉉(1978가)을 보라.

48) 1979년 우진사에서 낸 『〈定本〉 무정』을 이용하였다. 이 책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것을 대본으로 하고 1918년 광익서점에서 발행한 초판 단행본을 대조·참조하여 낸 교감본이다.

다. 월화의 얼굴과 재주를 보고 여러 남자가 침을 흘리며 모여들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미남자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투어 옷을 잘 입고 금시계와 금반지를 끼고 아무리 하여서라도 월화의 사랑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월화가 머릿속에 그리는 남자는 이러한 경박자는 아니었다(『無情』 95-6쪽).

(14가)는 직설법 과거가 먼저 오고 뒤에 직설법 현재 연쇄가 오는 예이다. (1), (10)와 성격이 같다. (14나)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일관한 예이다. 이런 예를 우리는 더러 보았다. (9가), (11다)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다. (14다)는 직설법 과거형으로 일관하여 있다. (9나), (9나'), (11가), (12가)가 모두 그런 텍스트였다.

다음 예는 회상법의 예이다.

- (15) 가. 그날 저녁때에 대동강에서 낚시질하던 배가 시체 하나를 얻었다. 그것은 월화더라. …… 평양 일부 김윤수의 아들은 ‘미친년!’하고 자기의 회통거리 없어짐을 한탄하더라(106쪽).
 나. 형식은 다음번 오는 전차를 탔다. 신호수가 푸른 등을 두르니 …… 전차는 구부러진 데를 돌아간다. …… 형식은 전차를 잘못 탔다. …… 형식의 얼굴은 과연 꼽시 붉게 되었더라(112쪽).

(15가)의 ‘월화더라’와 ‘한탄하더라’는 회상법 현재형이다. 다른 경우 같으면 직설법 과거형으로 나타나야 할 자리이다. 그렇게 보면 이 예는 과거형의 연쇄라고 할 수 있다. (14나)의 ‘되었더라’는 회상법 과거형이다. 다른 경우 같으면 직설법 과거형 ‘되었다, 되었었다’로 나타나야 할 예이다. 두 번째 자리에 직설법 현재형이 나타났다. 과거형의 연쇄의 중간에 직설법 현재형이 끼어들었다. 회상법의 예는 적어도 소설작품에 국한하는 한, 『無情』의 예가 마지막이 아닌가 한다.

다음 예는 『無情』에 나타나는 고대소설적인 문체로 보인다.

- (16) 가.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은 오후 두시 사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여조이는 유월 별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 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 명년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

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하여 오늘 오후 세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음이라(『無情』 11쪽).

- 나. 벌써 십유여년 전이로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남으로 십여리 되는 동네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無情』 23쪽).

(16가)의 ‘되었음이라’는 이전의 신소설에도 보이지 않는 춘원 특유의 문체이다. 다른 경우 같으면 ‘되었다’로 나올 어형이다. 그렇게 보면 이 예는 직설법 현재와 과거의 연쇄[사슬] 유형이다. (16나)의 ‘이로다’는 중세어의 감동법이 굳어져 만들어진 감탄형인데 문어체적인 어미이다. 시제상으로는 ‘전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형과 과거형의 연쇄이다.

(15), (16)에 보이는 고대소설적인 문체, 특히 ‘-더라’형의 문장 종결어미가 그 이후의 작품에서 사라진 것은 김동인의 의도적인 문체개혁에 말미암는다. 김동인의 처녀작 「弱한 者의 슬픔」(1919)⁴⁹⁾을 보면 앞에서 검토한 현대소설의 이른바 구어체 문장은 바로 김동인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7) 가. 가정교사 강 엘리자베트는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하였지만 이제껏 쾌활한 아이들과 마주 유쾌히 지낸 그는 깜깜하고 갑갑한 자기 방에 돌아와서는 무한한 적막을 느꼈다(「弱한 者의 슬픔」 320쪽).

- 나. 쾅쾅! 하는 아이의 발소리가 이럴 때에 엘리자베드의 방으로 가까이 온다. 엘리자베드는 빨리 어두운 편으로 향하였다. 문이 열리며 여덟 살 된 남작의 아들이 나타나서 엘리자베드에게 저녁을 재촉하였다. 저녁을 먹으려 가기가 싫은 엘리자베드는 안 먹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없었다(「弱한 者의 슬픔」 327-28쪽).

- 다. 이럴 동안 전차는 S 병원 앞에 멈었다. 엘리자베드는 섭섭한 생각을 품고 전차를 내렸다. — 어떤 시선이 자기를 따라온다. 그는 해아렸다. 비는 보스럭비로 변하였다(「弱한 者의 슬픔」 333쪽).

(17가)는 (9나), (9나'), (11가), (12가)와 같이 현대소설에서 흔히 보는 서사 시제의 배치이다. ‘흔히 본다’는 것은 대부분의 소설지문이 직설법 과거시제

49) 1978년 語文閣에서 나온 『新韓國文學全集』 2에 실린 것이다.

의 연쇄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17나)는 직설법 현재형이 먼저 오고 이어 직설법 과거형의 연쇄로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17다)는 직설법 과거와 직설법 과거의 연쇄 사이에 직설법 현재시제를 배치한 것이다. 직설법 현재형의 연쇄로 일관하여 있는 『無情』의 (13나)의 단조로운 직설법 현재를 극복한 것이다. 실제로 김동인은 “현재법을 사용하면 主體와 客體의 구별이 명료치 못함을 깨달았다. 우리는 감연히 이를 배척하였다”⁵⁰⁾에서 보듯이 『無情』과 그 이전의 신소설에서 흔히 보는 직설법 현재의 연쇄형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시도된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판소리와 방각본 소설로부터 진행되어 온 서사시제의 자연적인 상담시제로의 합류이지만 김동인의 그런 소행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동인은 중세 아래 조선조 후기의 대하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던 (15)의 회상법 ‘-더라’와 (16나)의 감동법 ‘-로(〈도〉다’까지 버림으로써 문체의 근대화를 이루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⁵¹⁾

(18) 물론 「깨닫겠더라」의 「더라」도 口語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양심은 「깨닫겠다」라 하여 철저히 하여 놓지를 않으면 용인치를 못하였다. 당시의 春園의 작품은 口語體라 하여도 아직 많은 文語體의 흔적이 있었다. 「이더라」, 「이라」, 「하는데」, 「말삼」 등을 그의 작품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불철저한 것은 모두 배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에서 김동인이 ‘-더라’에 대하여 구어에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관적 장면에 나타나는 회상법을 가리킨다. 김동인이 고쳐 놓은 ‘깨닫겠다’도 엄격한 의미의 해라체가 아니다. 단독적 장면에 나타나는 평서법이며 ‘-다’는 해라체의 평서법과 형태가 같지마는 ‘하라체’라 불리는 중립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어체의 도입임에 틀림없다.⁵²⁾ 회상법이 직설법으로 바뀌는 것이 신

50) 김동인(1929/1976: 156)을 보라.

51) 관련 논의는 김동인(1929/1974: 155), 趙演鉉(1978나: 518-19)을 보라.

52) 하라체에 대하여는 고영근(1974/1999: 392)을 보라. 조동일(2005: 236)에서는 ‘하더라’를 ‘했다’로 고치고 삼인칭 대명사로 ‘그’를 도입한 것은 새로운 문어체를 만들었다고 비판을 가하였다(뒤에 나옴). 최근 권보드래(2000: 235-255, 특히 248)에서는 하라체를 ‘-다’체라고 불러 ‘고립된 개인의 언어’로 처리하였다.

소설 이전부터 진행된 변화의 흐름을 탄 것이지만 김동인은 이광수의 『無情』에 일부 남아 있던 마지막 숨결을 차단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미주의 인디언어와 아이누어에는 상담시제와 구별되는 특이한 서사시제 형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의 민족문학작품에도 ‘-더라’와 같은 정형화된 서사시제 형식이 존재하였는데 19세기 중엽부터 소극화되고 신소설을 거치는 동안 위축되다가 끝내는 김동인에 의하여 깡그리 소탕된 것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뒤에 나옴).

그리면 『無情』 이전의 신소설에는 서사시제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 이인직의 『鬼의 聲』(1906)에 나타나는 서사시제의 분포를 보기로 한다.⁵³⁾ 텍스트는 권영민 엎음(2008)의 〈신소설 전집〉을 이용한다. 이 전집은 전반과 후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현대 맞춤법으로 고쳐 적었고 후자는 원전을 영인하여 보이었다. 원전의 표기는 참고로 오른쪽 팔호 안에 보이었다. 앞의 『無情』에서는 지문의 대부분이 직설법 현재와 과거로 실현되고 회상법은 매우 드물었는데 신소설에서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쪽수는 각 텍스트의 출전을 표시한다.

- (19) 가. 얼굴은 돋아 오는 반달같이 텁스럽더라(7쪽)(원전 1쪽, ~ 텁스럽더라).
- 나. 삼학산 그림자가 창을 점점 가리면서 방안이 우중충하여지는데, 부인도 생각을 잊으며 잠이 들었더라(8쪽)(원전 1쪽, ~드럿더라).
- 다. 김승지 맹세가 거짓말 맹세가 아니라 종무소주한 마음에 참말로 한 병세일러라(45쪽)(추측회상법)(원전 43쪽, 병세일러라).

(19가)는 회상법 현재형이고 (19나)는 회상법 과거이다. (19다)의 ‘-ㄹ러라’는 추측회상법 ‘-리러라’의 축약형태이다. 회상법 현재형과 과거형은 이미 15세기의 『석보상절』 및 『월인석보』 등의 번안류와 언해류에서 시작하여 『구운몽』을 거쳐 조선조 후기의 대하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편재(遍在)되어 있었던 서사시제형이었다.

53) 신소설의 서사시제의 분포에 대하여는 일찍이 권영민 교수에 의하여 조사된 바 있다. 권보드래(2000: 236)를 보라.

한편 『鬼의 聲』에는 『無情』에 흔히 보이던 직설법이 제법 확인된다.

- (20) 가. 강동지의 마누라가 웃통 벗고 넓은 속곳 바람으로 한걸음에 뛰어왔다
(8쪽)(직설법 과거)(원전 2쪽, 씨여았다).
- 나. 다시 안방으로 향하고 강동지를 부른다(8쪽)(직설법 현재)(원전 2쪽, 부른다).

(20가)의 ‘뛰어왔다’는 직설법 과거형이고 (20나)의 ‘부른다’는 직설법 현재형이다.

신소설 중에서 비교적 늦게 나온 최찬식의 『안의 성』의 서사시제의 사용 양상을 보기로 한다. 앞의 『鬼의 聲』과 같이 대개는 회상법 현재와 회상법 과거, 더러 직설법 현재와 직설법 과거 나온다. 지정사의 직설법 현재는 거의 ‘이라’로 일관하여 있으며 추측회상법도 보인다.

- (21) 가. 마포동리 동장으로 있는 성운경(成雲卿)을 청하였더라(19쪽)(회상법과 거)(원전, 마포동리동장으로 있는 성운경(成雲卿)을 청 흐 엿더라, 12쪽).
- 나. 고개를 숙이고 외면을 하더라(39쪽)(회상법현재)(원전, 고기를숙이고 외면을 흐더라, 32쪽).
- (22) 가. 부인의 귀뿌리를 거스른다(7쪽)(직설법 현재)(원전 1쪽 같음).
- 나. 한탄을 하며 보던 편지를 마저 본다(62쪽)(직설법 현재)(원전, ~마져 본다, 56쪽).
- 다. 상현의 모친은 정애를 이혼시키고 정애를 친정으로 보낸다. 이혼신고를 민적계에 제출한다 한 후에(141쪽)(직설법 현재)(원전, ~ 보낸다 한 후에, 134쪽).

(21)은 (가)는 회상법 과거, (나)는 회상법 현재이고 (22)는 직설법 현재이다. 대부분 앞의 『鬼의 聲』과 같이 회상법 현재와 회상법 과거로 나타나고 더러 직설법 현재와 직설법 과거가 보인다. 지정사의 직설법 현재는 거의 ‘이라’로 일관하며 추측회상법도 보였다.

『鬼의 聲』과 『안의 성』밖에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연대순으로 각 작품의 서사시제의 분포를 개관하기로 한다. 텍스트는 모두 권영민

엮음(2008)을 이용하였다.⁵⁴⁾

(23) 신소설의 서사시제의 분포⁵⁵⁾

이인직의 『血의 淚』(1907)(권영민 엮음, 혈의 누, 2008[신소설 전집 1, 뿔]):

직설법 현재(7, 8, 9, 11), 직설법 과거((18), 회상법 현재(10), 회상법 과거(9, 15, 21), 회상법 미래(40),

이인직의 『모란봉』(매일신보 1913)(『血의 淚』의 하편):

직설법이 회상법보다 강세이다.

이해조, 『빈상설』(1908), (권영민 엮음, 2008[신소설 전집 5], 뿔):

직설법 현재(9, 11, 15, 19, 20, 23), 회상법 현재(32)

안국선, 『금수회의록』(1908)((권영민 엮음, 금수회의록, 2008[신소설 전집 8, 뿔]):

직설법 현재(13, 19, 22), 회상법 현재(18), 추측회상법(27).

이인직, 『은세계』(1908)(권영민 엮음, 2008[신소설 전집 4], 뿔):

직설법 현재(10-11, 30, 57, 86 119), 직설법 과거(11, 30, 57), 직설법 미래(57)

회상법 현재(86), 회상법 과거(30, 86)

최찬식, 『추월색』(1912)(권영민 엮음, 2008[신소설 전집 9], 뿔)

직설법 현재(8, 13, 18, 29, 33, 36, 37, 38, 50, 51, 52), 직설법 과거(15, 19, 25, 31, 32, 34), 회상법 현재(8, 10, 20, 33), 회상법 미래(7, 8)

전반적으로 보면 직설법이 회상법을 누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V. 중세 및 근대 한글작품의 서사시제

19세기와 20세기 초는 우리 민족문학작품의 서사시제가 큰 변혁을 일으킨 시기였다. 김동인이 의도적으로 파기한 회상설명법 ‘-더라’는 『無情』에서

54) 팔호 안은 현대역의 쪽수를 가리킨다.

55) 이곳의 서법체계는 고영근(1965/1999가: 151)을 따른다. 직설법 현재는 ‘한다’, 직성법 과거는 ‘하였다’, 직설법 미래는 ‘하겠다’, 회상법 현재는 ‘하더라’, 회상법 과거는 ‘하였더라’, 회상법 미래는 ‘하겠더라’, 추측회상법은 ‘하리러라/할리라’이다. 신소설에는 직설법 형태로 ‘-는지라’가 더러 보인다.

도 그 쓰임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신소설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 아니었다. 판소리계 소설 중 완판본과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집은 직설법이 서사시제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 문학작품의 서사시제의 변화양상을 좀더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5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서사시제의 사용양상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9세기 중엽 이후의 서사시제와 통합서술하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먼저 필자가 전일 중세어의 시상법을 체계화하고 서술성어미와 관형구문의 상관관계를 추적할 때,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리한 기본서법을 중심으로 중세어의 서사시제의 면모를 엿보기로 한다. 15세기 자료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주로 이용하고 언해자료는 부수적으로 참고할 것이다. 중세어의 서사시제는 기본서법에 의존하였다. 기본서법은 종결형뿐만 아니라 접속·연결형과 관형사형에도 실현되었다. 중세어의 종결어미에는 ‘둘째설명법어미’라 불리는, ‘-(으)니라’로 끝나는 보수적인 ‘흐니라’와, ‘첫째 설명법어미’라 불리는, ‘-다’로 끝나는 ‘흐다’의 두 어형이 있었다. 편의상 ‘흐다’와 ‘흐니라’로써 구체적 어형을 대신하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법만 논의의 대상에 올리며 형용사와 지정사는 들지 않는다.

(24) 중세어의 서사시제 체계⁵⁶⁾

	설명법		접속연결형	관형사형
	첫째 설명법	둘째 설명법		
부정법	흐다	흐니라	흐니	흐
직설법	흐느다	흐느니라	흐느니	흐는
회상법	흐더라	흐더니라	흐더니	흐던
추측법	흐리라	흐리니라	흐리니	흘(*흐린)
추측회상법	흐리러라	흐리러니라 ⁵⁷⁾	흐리러니	0

56) 고영근(1981/1998: 15, 113; 1982/2004: 29, 174)을 보라.

57) 초고를 읽은 이지영 교수는 『금강경언해』에 나타나는 다음 ‘-러리니라’를 서사시제로 볼 수 있다고 제보하였다.

서술자가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회상법을 사용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법에 기대기도 하였다. 책에 따라서는 부정법이 우세한 경우도 없지 않다. 『월인석보』 권 1의 첫 머리 「瞿曇氏興家記」를 읽기 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옮겨 적는다. 독해를 위하여 어절별로 띄어쓴다. 단 대화부는 내용은 생략하고 “……”로 표시한다.

(25) 넷 阿僧祇劫時節에 혼 菩薩이 王 드의야 겨샤 나라흘 아수 맷디시고 道理 빅호라 나아가샤 …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이라 흐더라 菩薩이 城 뒷 甘蔗園에 精舍 링글오 흐오사 안자 잇더니 도죽 五百이 그윗거슬 일버서 精舍 겨득로 디나가니 그 도죽기 菩薩人 前世生人 惑鬱리라 이enus나래 나라해 이서 도죽기 자취 바다가아 그 菩薩을 자바 남기 모물 빼수방 뒷더니 大瞿曇이 天眼으로 보고 虛空애 누라와 물즈보더 “……” 菩薩이 對答호샤되 “……” 그 王이 사름 브려 쏘이 주기수 복니라(『월인석보』 1, 4앞~7뒤)

(25)는 석가모니의 아득한 옛날의 조상인 구담씨 가족이 홍가한 전래담을 서술자인 『석보상절』 편찬자가 기록한 것이다. 위의 텍스트에는 두 개의 종결형 ‘흐더라’와 ‘주기수 복니라’가 사용되었다. 전자는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이고 후자는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이다. 둘째 설명법의 ‘흐니라’는 동사, 형용사, 지정사에 두루 붙는데 특히 동사에 붙을 때에는 과거나 과거와 관련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현대어에서 부정관형사어미 ‘-(으)ㄴ’이 동사에 붙으면 과거를 표시하는 현상과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 두 어형을 교체하여도 이야기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긴장이 풀어진 (Entspannung)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성립되는 만큼 그 시제의 내용이 긴장된 상황에서 실현되는 상담시제와 같을 수가 없다.

(25)와 같이 같은 텍스트 안에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과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이 공존하는 예를 더러 발견할 수 있다.

(26) 阿羅漢을 得호리도 잇더라 六師의 弟子들토 다 술리弗의 와 出家호니라

샤되 혼 念사 설운 모수미 업스시니 혼다가 설운 모수미 겨시면 곧 噴心호야 괴요물 내시리러니라 〈金剛80 앞〉.

(『석보상절』 6, 35앞)

(25)의 서사시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려면 다음과 같이 상담적 상황에서 실현되는 회상법, 부정법과 비교해야 한다.

(25') 가. “(須達) … 그릇 쟈를 맛고져 호더이다”(『석보상절』 6, 15앞)

나. “흐 물며 長者! 천량 그지 업슨 들 아라 아들들 훌 饒益게 호려 흔 가지로 큰 술위를 주니이다.”(『월인석보』 12, 35앞)

(25'가)의 ‘호더이다’는 첫째 설명법의 회상법인데 ‘흐’이다, 흐느이다, 흐리이다’ 등과 계열적 내지 통합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시성이 분명하여 다른 형태로는 치환이 불가능하다. (25'나)의 ‘주니이다’는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으로서 ‘주느이다, 주더이다’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를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상담시제의 부정법과 회상법은 서사시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지시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 나름의 시제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중세어에는 위에서 든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과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밖에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의 ‘흐다’가 과거의 사건을 서술할 때 쓰이는 일이 있다.

(27) 王이 怒. 흐여 니르샤되 “……” 흐시고 夫人 벼슬 아수시고 그 蓮花를 ㅂ리라 흐시다(『석보상절』 11, 31앞)

위의 예는 녹모부인이 연꽃을 놓은 것을 보고 축생의 소생이니 버리라고 한 왕의 명령을 서술한 것인데 다른 경우 같으면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 ‘호더라’나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의 ‘흐니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긴장이 풀어진 상황인 만큼 지시성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27)의 서사시제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상담적 상황에 쓰인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과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27) “(世尊) … 世間에 상네 이서 내 正法을 護持하라 혹시이다”(『석보상절』24, 45뒤)

위의 ‘혹시이다’와 같은 예는 혼하지 않다. 대부분은 (25)의 ‘주기수 병니라’와 같은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으로 실현된다. ‘혹시이다’는 ‘혹시는이다’, ‘혹시더이다’와 같은 구조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시성이 분명하다.⁵⁸⁾

직설법은 첫째 설명법인 ‘혹느다’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둘째 설명법 ‘혹느니라’로 실현된다,

(28) 仙人은 제 몸 구터 오래 사는 사르미니 외해 노니느니라(『월인석보』, 1, 8뒤-9앞)

(28)은 협주에 나오는 ‘仙人’에 대한 뜻매김이다. 협주란 지문의 하나이며 이는 전형적인 서사적 상황이다. 따라서 서술자와 독자와의 긴장이 풀어질 것은 분명하며 지시성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28)의 서사시체로서의 특징은 상담시제인 다음 (29)와의 비교에 의하여 분명해진다.

(29) “길혜 를 기리 오시느니라”(『월인석보』 8, 100뒤)

위의 예는 직설법의 둘째 설명법이다.⁵⁹⁾ 사라수대왕(沙羅樹大王)이 어디 있느냐는 안락국의 물음에 대한 팔채녀의 답변이다. ‘오시느니라’는 ‘오시니라, 오더니라, 오리니라’⁶⁰⁾와 같은 구조적 상관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

58) 이토(1994가, 나)는 필자의 서사시체를 뒷받침하는 연구이다. 이곳에서는 지문과 회화문에 실현되는 ‘하다, 하니라, 하더라’의 사용양상을 구명한 것인데 필자가 주장한 ‘하다’와 ‘하니라’의 치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표명되어 있다. 이토(1994나)는 이토(2001)로 발전되어 발표되었다.

59) 직설법의 둘째 설명법은 원칙법과 형태가 같아 그 구별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1982/2004: 166-217, 432-33)을 보라.

60) 초고를 읽은 이지영 교수는 『소학언해』에 나오는 다음 예를 ‘-리니라’의 예로 들었다.

계으르고 프리디면 能히 정미흔 곧을 궁구티 몯흐고 혐흐고 조급흐면 能히

형적인 상담시제인 것이다.

추측법과 추측회상법은 다루지 않는다. 특히 서사적 장면에 사용된 추측법은 현재의 자료 취택범위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⁶¹⁾

우리는 현대의 문학작품을 검토하면서 과거사실을 서술할 때 모두 현재형을 배치하거나 텍스트의 앞이나 뒤에 직설법 현재형을 배치하는 것을 더러 보았다. (9가), (13나), (13나'), (14나)는 현재형이 일관한 것이고 (12다), (13가), (16가), (17나)는 앞이나 뒤에 현재형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월인석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서사시제를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0) 가. 婆婆世界內에 三千大千 나라하니 … 혼 나라해 혼 須彌山곰 이쇼드
 … 須彌山 밗과 널굽 山이 들어 있느니 … 赤眞珠 | 드외야 있느니
 라 … 를 우희 차 두펴 있느니라 … 널굽 山 밗괴사 鹹水 바다히 잇
 거든 婆沙竭羅龍王이 위두호야 있느니 너느 龍이 다 臣下 | 라 그 鹹
 水 바다해 네 서미 있느니 … 鐵輪王은 혼 閻浮提를 다스리시느니
 이 네 輸王이 혼 밤 낫소이에 조개 다스리시는 싸흘 다 도라샤 十
 善으로 教化 흐시느니 金輪王은 하늘해도 가시느니라(『월인석보』 1,
 21앞~25뒤)
- 나. 初祖迦葉尊者 | 正法으로 阿難이 맛디고 … 難足山애 가 滅盡定에 드
 러 이서 彌勒下生을 기드리습느니라 아래 阿闍世王이 … 흐앳더니 …
 어우렛더라(『석보상절』 24, 4뒤~6뒤)

(30가)는 직설법으로 일관하여 있고 (30나)는 앞 부분에는 직설법이, 뒷부분은 회상법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전자에는 ‘들어 있느니, 드외야 있느니, 두펴 있느니, 위두호야 있느니’와 같이 직설법 완료상이 실현되어 있고 후자에는 ‘흐앳더니, 어우렛더라’와 같아 회상법 완료상이 실현되어 있다.⁶²⁾

性을 다스리더 몯흐리니라 〈小學諺解 5, 15뒤〉

반드시 암탉이 새배 울어 뼈 직화를 널워음이 업스리니라 〈小學諺解 5, 68 뒤〉

위의 두 예는 『번역소학』에서 ‘몬흐리니(6, 16뒤-17앞, 업스리라’(7, 36뒤)로 나온다고 한다.

61) 예문은 고영근(1981/1998: 103, 1982/2004: 191)에서 볼 수 있다.

62) 대화에도 이런 예가 있다. 다음 예는 회상법(‘六千餘里’리니)과 ‘듣더니’) 사이에 직설법이 배치된 예이다, [+상관성]의 장면에 실현된 [-지시성]의 구문이라 할 것

지금까지 살펴본 중세어의 서사시제는 그 나름의 틀을 형성하여 조선조 말기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존속되어 왔다.⁶³⁾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대상으로 하면,⁶⁴⁾ 부정법과 직설법에서는 둘째 설명법 ‘흐니라’가 강세이고 회상법에서는 첫째 설명법이 강세였다. 추측법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모두 약세였다. 『능엄경언해』(1461)⁶⁵⁾를 보면 부정법은 대부분 둘째 설명법 ‘흐니라’가 선택되어 있고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 ‘흐더라’는 더러,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흐다’는 한 예만 보인다(권 1, 26앞). 구결문에는 “如是如是 흐니라”로 나오는데 언해문에는 “을타 을타”로 되어 있어(권 2, 44뒤) 구결문과 언해문이 어긋나는 예도 보인다. 『내훈』(1475)⁶⁶⁾에는 과거사실의 서술에 ‘-더라’가 많이 쓰이고 동사에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이 붙은 것이 제법 보이며 드물게는 동사에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다’가 쓰이는 일이 있다. 『남명집언해』(상)(1482)⁶⁷⁾에는 구결문에서는 “九年 을 孤坐鼻擦天 흐시다”(23뒤)와 같이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으로 나와 있는데 언해문에서는 “고히 하늘 훌 디르시니라”(23뒤)와 같이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으로 나와 있다. 이는 ‘흐시다’가 ‘흐니라’가 같은 가치를 떠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삼강행실도』(성종조)⁶⁸⁾에는 과거의 사건을 서술할 때에는 대부분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어형 ‘흐니라’를 선택하였으며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 ‘흐더라’를 취하는 일도 보이고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흐다’는 한 군데만 보인다.⁶⁹⁾ 16세기

이다.

부테 니르샤드 “過去에 혼 金翅鳥王이 이쇼티 모미 adratic 커 두 늘겟 스시
六千餘里 러니 상네 海中에 드러 龍을 자바 먹거든 … 金翅鳥 | 裳裟 보고 恭敬
심을 내야 나사 드러 龍을 자바 먹디 아니 흐느니 金翅鳥 | 龍 머금 저기면 늘
개로 바른 터든 므리 갈아디여 龍이 나거든 자바 먹느니 그제 혼 龍이 金翅
鳥의게 뒤쳐 즉재 裳裟를 뎅바기예 이여 adratic 조차 듣더니(『월인석보』 25, 29
뒤-30앞)

(63) 이 부분은 고영근(1982/2004: 206)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겹치되 주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64) 고영근(1982/2004: 174)을 보라.

(65) 경북대 영인본(1998)을 참고하였다.

(66) 연세대학교 영인본(1969)을 참고하였다.

(67) 단국대 영인본(1972)을 참고하였다.

(68) 시부(1990가)의 『諺解三綱行實圖研究』를 참고하였다.

문헌은 언해본은 15세기와 큰 차이가 없고 문학작품은 특별한 것이 없어 거론하지 않는다. 15세기에 간간이 보였던 회상법의 둘째설명법 ‘-더니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다음으로 17세기의 작품을 검토하기로 한다.⁷⁰⁾ 『계축일기』(1623~28?)⁷¹⁾에는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흐니라’가 많고 다음으로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 ‘흐더라’의 순서를 보여 주며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흐다’는 “대군 난 시다 듣고”(24장)와 같이 인용절에서 보인다. 『병자일기』(1636~1640)⁷²⁾에는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흐다’로 일관하였고 회상법의 첫째 설명법 ‘흐더라’도 보인다. 일기문에 ‘흐다’ 어형이 사용된 최초의 자료가 아닌가 한다. 『죽 천행록』(1645~1647)⁷³⁾에는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흐니라’와 ‘흐더라’가 섞여 쓰인다. 『山城日記』(1649 이전)⁷⁴⁾에는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흐다’와 둘째 설명법 ‘흐니라’가 섞여 있으며 회상법 ‘흐더라’도 더러 보인다. 『要路院夜話記』(1678)⁷⁵⁾에는 회상법 ‘흐더라’만 보인다. 『구운몽』(1687)⁷⁶⁾에서는 부정법은 첫째 설명법 ‘흐다’와 둘째 설명법 ‘흐니라’가 섞여 쓰이고 회상법과 추측회상법 ‘흐더라, 훌러라’도 보인다.

다음으로는 18세기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김인겸의 『일동장유가』(1763)⁷⁷⁾에서는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흐다’와 둘째 설명법 ‘흐니라’가 섞여 쓰였다. 특이한 것은 후자가 “일기도서 무그니라”(146쪽)와 같이 일인칭에 쓰인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는 이런 예가 많이 보인다. 『을병연행록』(1765~1766)⁷⁸⁾에서는 ‘흐다, 흐니라, 하더라, 훌러라’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흐

69) 시부(1990: 297)에서도 그 사용이 불규칙적이라고 하였다.

70) 17세기 이후 문헌은 특히 문학작품은 창작 연도와 필사 연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71) 『조선시대 궁중문학 시리스』 3(이화, 2005)을 이용하였다.

72) 박경신과 전형대의 『譯註 丙子日記』(애전사, 1991)를 이용하였다.

73) 조규익의 『17세기 국문사행록 죽천행록』(박이정, 2002)을 이용하였다.

74) 문화재 관리국 장서각 영인본(간행연대 미상)을 이용하였다.

75) 李秉岐(選解)의 『要路院夜話記』(을유문화사, 1949)를 이용하였다.

76) 김병국 교주 『구운몽, 九雲夢』(서울대출판부, 2007/2009)을 이용하였다.

77) 이민수 교주 『日東壯遊歌』(1979)(탐구신서, 105)를 이용하였다.

78) 소재영 밖에 『주해 을병연행록』(태학사, 1997)을 이용하였다.

다’는 일기의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17세기 전반의 『병자일기』에서 ‘호다’가 일기문에 쓰인 것을 보았는데 그 전통이 1세기가 훨씬 지난 18세기 중반에까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호다’는 “강의 써려져 죽다 호더라”(34쪽)와 같이 인용절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예를 우리는 『계축 일기』에서 본 바 있다. 유의양의 『북관노정록』(1773)⁷⁹⁾에는 ‘호더라’와 ‘호리라’가 지배적이다. 『인현왕후전』(정조조?)⁸⁰⁾에는 ‘호더라’가 지배적이고 ‘바려 두시니라”(63쪽)와 같이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호니라’를 취하는 일도 있으며 직설법의 새로운 형태 ‘호는지라’도 볼 수 있다. 『한중록』(1795)⁸¹⁾은 자서전적인 기록이니 만큼 엄격한 의미의 서사물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작자 혜경궁 홍씨가 자신이 겪은 일을 회상할 때에는 ‘호더라’가 쓰이고 주 어명사구가 3인칭일 때에는 ‘호니라’가 많이 쓰였다. 『무오연행록』(1798)⁸²⁾에서는 ‘호니라’형이 ‘호더라’보다 훨씬 많고 그밖에 ‘호다’도 눈에 뜨인다. 『의유당일기』(1892)⁸³⁾에는 ‘호더라’형이 많고 ‘호니라’형도 많으며 이미 일기문에 얼굴을 내민 ‘호다’형과 『인현왕후전』에 나왔던 직설법 어형 ‘호는지라, 한지라’⁸⁴⁾도 보인다. 『십구사략언해』(1832)⁸⁵⁾는 문학작품은 아니나 중세의 언해문과 같이 ‘호다, 호더라, 호니라’에 의하여 과거사실이 서술되었다. 『영세보장』(1864)⁸⁶⁾에서는 이런 종류의 작품과 같이 ‘호더라, 호니라, 훌러라’가 섞여 나온다. 장편대하소설 『낙천동운』, 『천수석』⁸⁷⁾과 『완월회맹연』⁸⁸⁾도 『십구사략언해』 등과 같이 ‘호더라, 호니라, 호는지라, 훌러라’ 등이 나온다. 민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한다.⁸⁹⁾ 종결형이 ‘호더라, 호는

79) 최강현 역주 『北關路程錄』(일지사, 1976)에 실린 자료를 보았다.

80) 이상보 역주 『인현왕후전』(1971)(을유문고, 70)을 보았다.

81) 이병기·김동욱 교주 『한중록』(민중서관, 1961)을 이용하였다.

82) 조규익 밖에 세 사람이 주해한 『무오연행록』(박이정, 2002)을 보았다.

83) 강한영 교주 『意幽堂日記』(신구문화사, 1974)를 보았다.

84) 형용사를 대표하는 어형이다.

85) 백두현·김주원의 『십구사략언해』(역락, 2003)를 보았다.

86) 정양완 역주(태학사, 1998)를 이용하였다.

87) 『낙천동운』과 『천수석』은 1971년과 1972년에 이화여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영인본 『落泉登雲』과 『泉水石』을 이용하였다,

88) 김진세 교주 『莞月會宴宴』 1(서울대학교출판부, 1987)을 이용하였다.

지라, 흐니라, 흐느니라'로 되어 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서사시제를 검토하는 일을 일단 신소설에서 멈추고 15세기로 경충 뛰었다. 이제 다시 19세기 후반으로 돌아와서 당시의 서사시제의 양상을 엿보기로 한다. 우선 이본이 많은 『춘향전』의 완판본과 경판본 등의 서사시제를 검토한다.

(31) 『춘향전』의 서사시제의 분포

가. 완판본⁹⁰⁾

직설법: 이라(1), 짓는다(13), 좋다(15), 날아든다(17), 맞추었다(27), 이었다(55)

회상법: 보더라(85)

나. 경판본

직설법: 제법이다(239), 근검하다(239), 茂盛하다(273)

회상법: 보내더라(255, 265, 271), 꾸몄더라(277), 變色하더라(283), 慰勞하더라(285)

부정법: 가니라(255), 封하시니라(287)

추측법: 못할지라(271)

다. 고대본

직설법: 소리난다(299), 片片金이라(299), 놓았다(337), 운다(349), 무너졌다(413)

회상법: 묻더니라(301)

라. 이해조, 『獄中花』

직설법: 삼겨 잇다(461), 善政碑라(461), 짓는다(463)

회상법: 흐앗더라(461), 異常흐던가 보더라(474), 振動터라(559)

완판본은 대부분 직설법이고 회상법 '흐더라'는 하나밖에 안 보인다. 경판본은 회상법이 직설법보다 많고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도 그런 대로 나타난다. 고대본은 대부분 직설법이고 회상법은 둘째 설명법이 하나 보인다. 『獄中花』는 직설법과 회상법이 반반씩이다.

89) 민답자료는 『歷代韓國文法大系』 2-18(Eckardt 문법)에 나오는 '단계적 연습문제' (Tables des Exercices Gradués)(一~三十九)와 역시 같은 책 2-24(Ridel의 문법)에 나오는 민답(三~八十一)을 가리킨다.

90) 〈韓國古典文學大系〉 10에 실려 있는 구자균 교주 『春香傳』(민중서관, 1970)을 이용하였다. 이하 모두 여기에 근거하였다. 팔호 안의 숫자는 쪽수를 가리킨다.

앞의 춘향전의 서사시제에 분포를 바탕으로 삼아 나머지 고대소설의 서사 시제의 분포를 개관하기로 한다.

- (32) 가. 『洪吉童傳』(경판본)/張德順·崔珍源 校註, 『洪吉童傳·壬辰錄·辛未錄·朴氏夫人傳·林慶業傳』(韓國古典文學大系 1), 教文社, 1984.
 회상법(3, 7, 9, 14, 27, 45), 부정법(25, 43, 47, 47), 추측회상법(28, 47)
- 나. 『壬辰錄』(국립도서관본)/張德順·崔珍源 校註, 『洪吉童傳·壬辰錄·辛未錄·朴氏夫人傳·林慶業傳』(韓國古典文學大系 1), 教文社, 1984.
 회상법(65, 67), 부정법(67, 79, 107), 추측회상법(71, 123)
- 다. 『임진록』(경판본), 소재영 역주, 연강학술도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부정법(둘째)(19, 28, 32, 36, 38, 44, 45, 54···), 부정법(첫째)(40, 52), 회상법(19, 23, 28, 44, 48, 49, 54···)
- 라. 『林慶業傳』/張德順·崔珍源 校註, 『洪吉童傳·壬辰錄·辛未錄·朴氏夫人傳·林慶業傳』(韓國古典文學大系 1), 教文社, 1984.
 회상법(173, 175), 부정법(둘째)(177, 181, 191), 부정법(첫째)(197)
- 마. 『朴氏夫人傳』(성문당판)/張德順·崔珍源 校註, 『洪吉童傳·壬辰錄·辛未錄·朴氏夫人傳林慶業傳』(韓國古典文學大系 1), 教文社, 1984.
- 바. 『辛未錄』(경판본, 1861)/張德順·崔珍源 校註, 『洪吉童傳·壬辰錄·辛未錄·朴氏夫人傳·林慶業傳』(韓國古典文學大系 1), 1984, 教文社.
 부정법(둘째)(435, 437, 439), 회상법(441, 443, 445), 부정법(첫째)(455, 475)
- 사. 『심청전』(정하영 역주,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13, 1995).
 경판본: 회상법, 추측회상법, 직설법(혹는지라)
 완판본: 회상법, 직설법 현재(들인다, 78, 떠나간다, 134, 진동흔다, 154), 직설법 과거(푸르렀다), 직설감탄법(잇구나, 80),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환궁혹시다, 210),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혹나라, 216)
- 아. 『옥단춘전』(박문서판본)(황폐강역주, 『숙향전/숙영낭자전/옥단춘전』,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5, 1993).
 회상법(324, 328, 330, 360, 362), 직설법 현재(362), 추측회상법(372)

(32가)에서는 회상설명법 ‘혹더라’가 6회로서 가장 많고 추측회상법 ‘흘러라’가 한번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혹나라’인데 4번 나온다. 이 경우의 ‘혹나라’는 ‘혹더라’로 대치할 수 있다. (32나)는 당시의 대하장편소설과 같이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나라’와 회상법 ‘-더라’ 등으로

종결되어 있다. (32다)에서는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흐니라’와 회상법 ‘흐더라’가 섞이기도 하고 전자만 나오는가 하면 후자만 나오기도 한다.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다’도 보인다. (32라)에서는 ‘흐니라’, ‘흐더라’의 순서로 나오고 ‘흐다’도 보인다. (32마)에서는 ‘대부분 ‘흐더라’로 나타나고 ‘흘러라’도 보인다.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흐니라’도 적지 않다(323, 333, 347, 351, 400).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흐다’는 회(回)의 제목으로 나온다. 그 예를 들면 “제일회 李公이 仙人을 만나 바둑과 통소로 서로 和答하여 時白이 金剛山에 들어가 朴氏와 成親하다”(297)과 같다. 본문에도 “大讚不已하시다”(369)와 같이 ‘흐다’가 쓰였다. (32바)에서는 ‘흐더라’와 ‘흐니라’가 같은 비율로 나타나며 ‘흐다’도 보인다. (32사)에서는 경관본은 당시의 대하소설과 큰 차이가 없고 완판본은 직설법이 많고 회상법 ‘흐더라’, 추측회상법 ‘-르레라’, 부정법의 첫째와 둘째 설명법도 보인다. (32아)에서는 대부분 회상법만 나온다. 적어도 19세기 중반에 판각된 방각본 중 완판본은 직설법이 회상법이나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보다 더 자주 실현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볼 판소리 사설집과 함께 서사시제의 변모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9종의 고대소설을 보면 그 가운데는 직설법 현재로 서술된 것을 더러 찾을 수 있다.

- (33) 가. 吉同이 …… 고이히 여겨 혼잣말로 이르되 (……) 하고 잠깐 八卦를 벌여 보고 大驚하여 書案을 물리치고 遷甲法을 行하여 그 動靜을 살피더니 四更은 하야 한 사람이 匕首를 들고 緩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지라. 吉童이 急히 몸을 감추고 眞言을 念하니 叠疊한 山中の 風景이 거룩한지라. 特재 大驚하여 吉同의 造化 神奇함을 알고 匕首를 감추어 避코자 하더니(15)(『홍길동전』)
- 나. 特재의 머리 房中에 내려지는지라 …… 이때 吉同이 兩人을 죽이고 乾象을 살펴보니 銀河水는 西으로 기울어지고 月色은 稀微하여 憐懷를 둘는지라 憎氣를 참지 못하여 …… 下直을 告코자 하더니(17)(『홍길동전』)
- 다. 鼓角喊聲은 天地를 振動하여 威嚴이 秋霜 같더라. 슬프다. 조선사람의 주검이 꾀 같고 꾀 흘러 江水 되니 그 數를 測量치 못할라라(71)(『임진록』 교문사 역주본)

- 라. 이때 함경도 谷山방에 한 사람이 있으되 姓은 金이요 名은 德齡이라 힘은 能히 三千斤을 들고 身長이 九尺이요 劍術과 六韜三略이 옛날 黃石公의 道術을 當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 父親 草土中에 있고 母夫人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93)『임진록』 교문사 역주본)
- 마. 리한림이 쏘 스은숙비¹하고 슈의를 내여 입고 마찌를 찬 연후에 마음이 밟바 급히 누려갈데 정신이 씩씩하고 의기양양²더라 슈일만에 평양을 당도³하니 산도 예 보든 산이오 물도 넷 물일너라. 연광정도 잘 잇스며 대동강도 무양⁴하나 무산 십이봉은 구름 밖에 소소 잊고 좌우산천 살펴보니 온갖 화초 만발하고 세류청광 벼들가지 황금⁵고 혼 쇠고리는 춘홍을 못 이기여 화류 중에 왕래흔다(362)『옥단춘전』)

(33가, 나) 모두 직설법으로 일관하여 있다. 물론 앞뒤에는 회상법이 도입되어 있어 과거 속의 현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3다, 라)는 심리형용사 ‘슬프다, 아깝도다’가 사용되어 서술자의 시점이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심리형용사는 원래 주어가 화자일 때 선택된다. 두 형용사의 주어명사구가 3인칭이라면 ‘슬퍼한다. 아까워 한다’로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⁹¹⁾ 자유간접화법의 테두리에서 논의될 수 있다.⁹²⁾ (33마)는 회상법 뒤에 직설법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앞의 (1), (12나), (14가)와 같은 유형에 소속시킬 수 있다. (33)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고전작품에도 직설법을 도입하는 이른바 ‘역사적 현재’라는 문체적 장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뒤에 나옴).⁹³⁾ 이는 (30)과 함께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로부터 형성된 문체적 장치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은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을 검토해 본다. 신재효의 작품은 대체로 1876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⁹⁴⁾

91) 심리형용사와 시점 옮기기에 대하여는 남기심(1989/1996)을 보라. 이 경우의 시점 옮기기가 소설 구성의 ‘전지적 작가 시점’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는 더 언급하지 않는다. 소설 구성에 있어서는 시점을 ‘1인칭 주관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의 넷을 둔다(구인환 2005: 233-42).

92) 고전작품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하여는 김병국(1995: 176-180), 정병설(1998: 66)을 보라.

93) 루코프(1986: 33)에서는 이른바 ‘역사적 현재’라는 문체장치가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여 둔다.

(34) 『申在孝 판소리 사설集』/姜漢永 校註(韓國古典文學大系, 1971)

가. 春香歌(男唱)(1876년 이전)

난다(3), 생겼구나(3), 놓치겠다(11), 꾸짓는다(17), 淨潔하다(17), 내려 왔다(25), 가는구나(27), 다하였다(35), 눈부신다(49), 논다(49), 범이었다(69), 보이겠다(91)

나. 春香歌(童唱)(1876년 이전)

짓는다(105), 나간다(105), 건너간다(109), 목이 맨다(115), 지내겠다(135)

다. 沈晴歌(1870?)

일컬더라(157), 있구나(161), 어른다(163), 되었구나(175), 가는구나(181), 부르더라(195), 慰勞한다(203), 하는구나(213), 생겼다(223), 다르다(243)

라. 鬼讐歌(1870?)

우는구나(253), 다르겠다(257), 警戒한다(269), 寂寞하다(273), 끊이었다(273), 앉았구나(275), 수놓는다(275), 分付한다(303), 非常하다(317),

마. 박타령(1876 이후)

나오겠다(325), 깜짝인다(327), 號令한다(343), 끊는구나(353), 조출하다(365), 메긴다(367), 메기겠다(375), 나온다(377), 되었구나(381), 가는구나(395, 405), 없다(415)

바. 赤壁歌(1853?)

붙였구나(451), 짓는다(453), 놀란다(461), 놀았구나(473)

사. 변강쇠歌(1884?)

것이었다(533), 시물난다(533), 하였구나(553)

이상의 7개 사설의 서사시제를 종합해 보기로 한다. 위의 『申在孝 판소리 사설集』에는 [附錄]으로 14편이 더 소개되어 있으나 조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34가)~(34사)의 서사시제를 보면 대부분이 직설설명법 현재와 과거이며 직설감탄법 ‘구나’와 직설확인법 ‘-겠다’도 꽤 보인다. 당시의 고대소설에 자주 보이던 회상설명법 ‘-더라’는 심청가에 하나만 보이고 부정법의 둘째 설명법 ‘-(으)니라’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앞의 고대소설의 서사시제와 함께 민족문학의 서사시제가 19세기 중엽부터 부정법 ‘흐니라’, 회상법 ‘흐더라’, 추측회상법 ‘흘러라’에서 직설법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94) 김종철 교수에 의하면 판소리 사설도 20세기 들어서서 필사된 것이 있어 그 원류를 찾기가 힘든 것이 많다고 한다.

수 있다. 신소설에서 이미 직설법 체계로 개편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 진행되어 변혁의 선상에 있었던 것이 반영된 데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삼아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사시제의 형태로 주목되어 온 회상설명법어미 ‘-더라’의 기능을 분명히 해두기로 한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회상법어미 ‘-더라’는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다’, 둘째 설명법 ‘-(으)니라’와 큰 의미의 차이 없이 대치될 수 있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고대소설에 많이 쓰이는 회상설명법 ‘-더라’는 구체적인 청자(독자)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하고 발화내용에 대한 인지가 없이는 ‘-더라’가 사용될 수 없다는 해석을 가하는 일이 있다.⁹⁵⁾ 중세어의 ‘-더라’는 앞에서 누누이 본 바와 같이 상담시제와 서사시제의 두 장면에 사용되었다. 서사시제에서는 서술자의 인지 내지 경험이 상정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사건을 서술할 때에는 회상법뿐만 아니라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 ‘-다’와 둘째 설명법 ‘-(으)니라’도 사용되었다. 모든 기본서법이 상담적 장면에 쓰이면 ‘긴장’(緊張)을 유발시키고 서사적 장면에 쓰이면 ‘해이’(解弛)를 유발한다는 바인리히(1964)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같은 과거시제 ‘-었’이라고 하여도 상담시제로 쓰일 때에는 지시성이 분명하여 과거시제의 성격이 부각되나 서사시제로 쓰일 때에는 지시성이 회박하여 직설법 현재시제로 교체될 수 있다.

VI. 마무리

이상과 같이 필자는 현대 민족문학의 한 대표적인 작품인 황순원의 「소나기」(1952)를 출발점으로 삼아 20세기 중후반의 최인훈의 『광장』과 최명희의 『흔불』을 비교하여 서사시제의 동질성을 확인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북

95) 권영민(1999: 213-14)에 그런 해석이 나와 있다. 권보드래(2000: 237), 이지영 (2002)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가하였다. 서사시제로서의 ‘더’에 중거양태를 적용한 것이 그러하다. 중거양태는 상담시제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고영근(2004/2007: 212)을 보라. 이홍식(2003)에서도 소설에 나오는 회상법 ‘-더라’의 폐기를 언어변화와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쪽의 대표적 문학작품의 하나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하여 중국 조선족사회와 옛 소련의 고려인사회의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모두 한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변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변종의 모태로서 염상섭의 『三代』를 들었으며 이 작품의 서사시제는 위로는 김동인의 「弱한 者의 슬픔」(1919)을 교량으로 삼아 이광수의 『無情』(1917)과 신소설에까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15세기의 한글 문학작품인 『월인석보』에서 시작하여 17,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전반기까지의 번안물과 언해물, 일기문, 기행문, 대하장편소설을 검토한 결과, 15세기부터 정형화되어 있었던 부정법과 회상법 중심의 서사시제가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초반부터 방각본이 유포되고⁹⁶⁾ 판소리가 정착됨에 따라 직설법 위주의 서사시제가 짹을 보이기 시작하였다.⁹⁷⁾ 20세기 초부터 나온 신소설에 이르러 종전의 회상법과 부정법 중심의 서사시제가 물러나고 직설법 중심의 체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다가 『無情』을 거치고 「弱한 者의 슬픔」에 이르러서 현재 우리가 대하는 직설법 위주의 서사시제로 통일되었다.

15세기의 한글문헌에 나타나는 서사시제는 상담시제와 형태적인 차이가 없었다.

(35) 15세기의 상담시제 체계

어미 구분 서법	설명법		접속연결형	관형사형
	첫째 설명법	둘째 설명법		
부정법	훗다	훗니라	훗니	흔
직설법	훗느다	훗느니라	훗느니	흐는
회상법	훗더라	훗더니라	훗더니	흐던
추측법	훗리라	훗리니라	훗리니	흘(*흐 린)
추측회상법	훗리리라	*훗리리니라 ⁹⁸⁾	훗리리니	0

96) 金一烈(1991: 91)에서는 방각본이 17세기 후반부터 출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정병설(2005)에서는 방각본의 출현 시기를 세책소설의 출현과 같은 시대인 18세기 초반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정병설 교수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였다.

97) 회상법과 부정법 위주의 서사시제가 직설법 위주의 서사시제로 변하는 원인을 방각본의 유포와 딱지본의 보급에 따르는 독서층의 확대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뒷날을 기다린다.

(24)에서 든 서사시제와 비교해 보면 사용상의 차이만 파악된다.⁹⁹⁾ 부정법의 첫째 설명법과 둘째 설명법은 사용 빈도가 비슷하다. 두 시제 모두 둘째 설명법의 ‘흐니라’가 강세¹⁰⁰⁾이고 첫째 설명법의 ‘흐다’가 약세이다. 직설법의 둘째 설명법은 서사시제에서는 강세이고 상담시제에서는 약세이며 첫째 설명법은 서사시제에서는 강세이고 상담시제에서는 약세이다. 회상법의 둘째 설명법은 서사시제에서는 보통이고 상담시제에서는 약세이다. 추측법의 둘째 설명법은 서사시제에서는 약세이고 상담시제에서는 그 예가 전혀 없다. 첫째 설명법은 서사시제에서는 약세이고 상담시제에서는 강세이다. 접속 연결어미와 관형사형어미는 서술성어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더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어가 민족문자인 한글에 기대어 처음으로 기록되었을 때, 서사물은 상담물(相談物)¹⁰¹⁾을 그대로 재현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¹⁰²⁾ 이전에도 이두나 구결에 기댄 서사물이 없지 않았으나 두 언어재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¹⁰³⁾ 현전하는 한글자료를 대상으로 그 체계를 세울 수밖에 없다. 한글 창제 초기에는 두 언어재의 모습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상담물은 부단한 변화를 경험하고 서사물은 고정되어 그 나름의 정형화된 틀을 형성하였다. 이를테면 상담시제는 중세어에서 확인되던 서법과 동작상 중심의 이원적 시상법 체계가 그 빠대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세어의 완료상이 과거시제로 문법형태화의 과정을 밟았고 예정상 역시 문법형태화의 과정을 밟아 미래시제로 재구조화됨으로써 시제, 서법, 동작상의 삼원적 시상법 체계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접속연결형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목격된다. 중세에 존재하였던 부정법과 직설법이 몇 세기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다음 표의 × 참조). 과거

98) ‘흐 리러나라’는 실재하는 어형인 아니고 체계상으로 재구된 것이다.

99) 고영근(1982/2004: 10)에 나오는 빈도 표시의 부호를 보라.

100) 고영근(1982/2004)의 ‘우세’를 ‘강세’로 바꾸었다.

101) 이곳의 ‘상담물’은 일상 언어재를 가리킨다.

102) 이 문제는 필자가 고영근(1993: 70-1)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03) 이 문제는 김미형(2003)에도 지적된 바 있다.

시제의 ‘-엇-’이 19세기 전후에 확립되고 ‘미래시제의 ‘-겟-’이 19세기 중엽에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¹⁰⁴⁾ 당시의 상담시제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36) 19세기 중엽의 상담시제의 체계¹⁰⁵⁾

	설명법	접속연결형	관형사형
부정법	×	×	흔
직설법	흐다	×	흐는
회상법	흐더라	흐더니	흐던
추측법	흐리라(하겟다)	흐게시니(흐리니)	흘
추측회상법	흐겟더라	흐겟더니	

그러나 서사시제는 19세기 중엽까지 변화가 없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회상법 중심의 서사체계가 서서히 직설법 중심의 서사체계로 변모하여 적어도 소설에 관한 한, 직설법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⁶⁾

그러면 신소설부터 목격되기 시작하는 직설법 현재와 직설법 과거형의 혼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앞에서 검토한 우리 민족어의 서사시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¹⁰⁷⁾

- (37) 가. 직설법 과거형의 연쇄: (9나), (9나'), (11가), (12가), (14다), (17가)
 나. 직설법 현재형의 연쇄: (9가), (11다), (13나), (14나)
 다. 직설법 현재형의 연쇄 — 직설법 과거형의 연쇄: (12다), (13가), (16가), (16나), (17나)
 라. 직설법 과거형의 연쇄 — 직설법 현재형의 연쇄: (1), (10), (11나),

104) 관련 논의는 고영근(2004/2007: 414, 425-26)을 보라.

105) 이 체계는 고영근(2004/2007: 379-434, 1982/2004: 203-5)의 기술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

106) 이지영(2002, 2008)에 기대면 신문 등에서는 종결형이 ‘-더라’형에서 ‘-한다(고) 한다’의 단계를 거쳐 1931년부터 ‘-엇다’형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107) 필자가 유형화한 시사시제의 연쇄는 소설의 단락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설 단락이 작자보다는 편집자의 임의에 의하여 분단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2나), (14나)

- 마. 직설법 과거연쇄 — 직설법 현재연쇄 — 직설법 과거연쇄: (17다)
- 바. 과거연쇄와 현재연쇄의 교대: (8)
- 사. 해라체의 직설설명법 — 직설설명법의 현재: (4)

(37사)는 일기문의 서사시제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37가)는 많은 작품에서 대하는 서사시제의 연쇄이다. 과거형으로 일관하다가 독자가 이를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현재형으로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소나기」를 보면 등장인물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다가 서술자의 차례가 되면 직설법 현재로 시제를 바꾼다. (37나) 역시 같은 작가의 작품에서 뽑았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직설법 과거와 현재가 섞여 나온다. 작품 전편을 직설법 현재로 지향하는 작가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형으로 한참 동안 일관하다가 독자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생각에 미치면 과거시제를 도입한다. 실제로 최인훈의 『광장』을 보면 4쪽부터 과거시제가 띄엄띄엄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럴 때에는 현재시제가 무표적이고 과거시제가 유표적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37다)는 직설법 현재형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직설법 과거형이 나오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현재형이 과거형보다 많으면 현재형이 무표적이고 과거형은 유표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37라)는 현대의 소설에서 가장 선호되는 서사시제 유형이다. 과거시제가 무표적이고 현재시제는 유표적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정수, 루코프, 정희자, 김정남, 하마노우에 등이 과거시제를 무표적이나 그에 가까운 것이라 보고 현재시제를 유표적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 모두 이런 사실과 관련된다. (36마)는 과거시제 사이에 현재시제가 끼어드는 유형이다. 이 역시 과거시제가 무표적이고 현재시제는 유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7마)는 과거시제와 현재시제가 교대되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시제의 전반적인 배치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형을 유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과거형을 유표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⁰⁸⁾

108) 쉬프린(D. Schiffrin)(1981)과 같이 계량적 분석법을 사용하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후일을 기다린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지영 교수의 논평을 참고하였다.

우리는 (37)에서 소설의 서사시제 배치에 있어 여러 유형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 어떠한 문체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현재형 또는 과거형을 도입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역사적 현재 내지 현사법으로 보아 과거의 일을 마치 경험하는 듯이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할 때 채택되는 문체적 장치라고 보았으며 최근에는 연극적 잠재력과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필자는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문체적 장치로 보고 싶다. 필자의 이 견해는 앞의 이인영(1993)에서 최근의 이 방면의 연구成果를 종합하여 도출한 ‘두드러지게 하기’와 취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은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직설법 현재시제로 일관하거나 그것이 우세한 장면의 묘사를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직설법 중심의 서사시체의 변동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둘러싸고 갖가지 견해가 속출하여 있다. 필자는 주로 언어 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소종래를 밝히려 하였으나 언어 외적인 요인에 더 무게를 두고 논의를 전개하는 일도 적지 않다.¹⁰⁹⁾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필자가 15세기로부터 20세기까지 주마간산식으로 확인한 서사시제의 사용양상을 텍스트 유형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하여 서사시제의 체계를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나온 차자자료의 서사시제를 체계화하고 이를 한글작품에 나타나는 서사자료와 유기적으로 관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려 시대의 이두자료의 집성인 『大明律直解』¹¹⁰⁾와 조선조 초기의 고문서 이두문¹¹¹⁾을 통한 실용문의 시제, 그리고 최근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석독구결자료에 나타나는 상담시제와 서사시제를 체계화하는 문제가 연구자의

109) 대표적으로 앞에서 든 권영민(1999)을 보라. 김유중 교수는 본고에 대한 논평에서 ‘수평답론’의 발생과 관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10) 大明律直解에 대하여는 연구물이 많다. 대표적으로 朴喜淑(1984), 吳昌命(1995) 등의 연구실적이 있다.

111) 대표적으로 朴盛鐘(2006)을 보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젊은 후학들의 분발을 바라 마지 않는다(2009. 6. 30일에 초고를 작성하고 2009. 8. 4일에 여러 사람의 소견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다듬다).

참고문헌

- 강현국(2003), 「서사담론의 시제 연구」, 『우리어문연구』 21, 257-280.
-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敏法體系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15.
- 高永根(1976), 「現代國語의 文體法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12.1, 17-53.
- 高永根(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敏法』, 탑출판사.
- 高永根(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1998),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보정판), 탑출판사.
- 高永根(1999가), 『國語形態論研究』(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1999나), 『텍스트이론』(대우학술총서 448), 아르케.
- 고영근(2004), 『단어 문장 텍스트』(보정판), 한국문화사.
- 고영근(2006), 「절대문은 세울 수 있는가 — 임홍빈(1983)을 중심으로」, 『형태론』 8.1, 103-111.
- 고영근(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태학사.
- 구도(工藤眞由美)(1993), 「小説の地の文テンポラリティ」, 『ことばの科學』 6, 17-65.
- 구도(1995), 『アスペクト・テンス 體系 とテクスト』 — 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 구도 마유미(1995)/정상철(역)(2004), 『애스펙트·텐스체계와 텍스트』(アスペクト・テンス體系トテクト), ひつじ書房.
- 구인환(2005), 『소설론』(운당 구인환 문학전집 18), 푸른 사상.
- 권보드래(2000),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 권영민(1999),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총서 5),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영민 엮음(2008), 『신소설 전집』, 뿔.
- 기욤(G. Guillaume)(1969),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Librairie A.-G. Nizet.
- 기욤/발랭(監修)/朴亨達(譯註)(2001), 『理論言語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동인(1929/1976), 「朝鮮近代小說考」, 조선일보 1929. 7. 28~8. 16/『金東仁全集』 6. 삼중당, 1976, 155-160.
- 김미형(2002), 「국어 텍스트의 장르별 초기 문체 특징과 비교」 — 문장 종결 양상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3, 209-240.

- 김병국(1995),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언자(2002), 「서사텍스트에서의 현재시제의 용법」, 『불어불문학연구』 48, 545-565.
- 김언자(2000), 「서사텍스트에서의 반과거의 용법」, 『불어불문학연구』 44, 575-597.
- 김일웅(1983), 「담화의 시제」, 『국어국문학』 21(부산대), 97-130.
- 金一烈(1991), 『古典小說新論』, 새문社.
- 김정남(1993), 「현대소설의 지문에 나타나는 시상의 양상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1, 317-340.
- 김한식(2007),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211-243.
- 김홍수(1989), 「국어 시상과 양태의 담화기능」, 『而靜鄭然粲先生回甲紀念論叢』, 탑출판사, 315-334.
- 김홍수(2004), 「1인칭 소설에서 시점의 세부 유형과 추이에 대한 텍스트론적 접근」, 『어문학논총』 23(국민대학교), 75-95.
- 김홍수(2005), 「소설에서 현재 시제 관련 양태의 의미와 그 텍스트 기능」, 『우리말 연구 설흔 아홉 마당』, 태학사, 757-791.
- 남기심(1989/ 1996), 「화자의 시점 읊기기와 문법」, 『국어문법의 탐구』 II, 태학사, 623-629.
- 루코프(F. Lukoff)(1986), "The Use of Tenses in Korean written Narrative", Kim Nam-Kil(eds) *Studies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East Asian and Study Cent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33.
- 리몬-케논(1983)/崔翹圭(역)(1985), 『小說의 詩學』, 文學과 知性社.
- 리쾨르(P. Ricoeur)(1983, 1984, 1985), *Temps et récit*, Editions de Seuil, Paris.
- I. 김한식·이경래(공역)(1999), 『시간과 이야기』, 문학과 지성사.
 - II. 김한식·이경래(공역)(2000), 『시간과 이야기』, 문학과 지성사
 - III. 김한식(역)(2004), 『시간과 이야기』, 문학과 지성사.
- 마르땡(R. Martin)(1971), *Temps et aspect — Essai sur l'emploi des temps narratifs en moyen français*, Paris: Klincksieck.
- 뮐러(G. Müller)(1947), *Die Bedeutung der Zeit in der Erzählkunst- Bonner Antrittsvorlesung*, Universität-Verlag Bonn.
- 바쉬(C. Bache)(1986), "Tense and Aspect in Fiction," *Journal of Semantics*

- 15.2, 82-96.
- 바인리히(H. Weinrich)(1964),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Kohlhammer(스페인어역 1968, 프랑스역 1973, 이탈리아어역 1978, 日譯: 時制論-文學 テクトの分析, 紀伊國屋書店, 1982).
- 바인리히(1970), "Tense and time," *Archivum Linguisticum*, 1(new series), 31-41.
- 바인리히(1993), *Textgrammatik*, Duden.
- 바인리히(H. Weinrich)(2001),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6. neu bearb. Aufl., München: Verlag C.H. Beck.
- 朴亨達(1987), 『理論言語學의 比較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朴喜淑(1984),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明知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밴비니스트(E. Benveniste)/황경자(역)(1992), 『일반언어학의 제문제』(I)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민음사.
- 밴비니스트(E. Benveniste)/황경자(역)(1992), 『일반언어학의 제문제』(II)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민음사.
- 벌(W.E. Bull)(1960), *Time, Tense and the Verb*, Berkeley-Los Angeles.
- 벨로스(D.E. Bellos)(1978), "The Narrative Absolute Tense," *Language and Style* 11.4, 231-237.
- 브론츠웨어(W.J.M. Bronzwaer)(1970), *Tense in Nobel*, Wolters-Noordhoff.
- 브론츠웨어(W.J.M. Bronzwaer)(1975), "A Hypothesis concerning Deictic Time-adverbs in Narrative Structure," *Journal of Semantics* 4, 53-72.
- 사우베커(L. Schaubecker)(1968), "Besprechung von Harald Weinrich(1964)," *Zeitschrift französische Sprache und Literatur* 84. 3/4, 263-479.
- 서정수(1976),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3, 83-158.
- 서정수(2006), 『국어문법』, 한세.
- 소광희(2001),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 슈탄젤(F. K. Stanzel)(1959), "Episches Praeteritum, erlebte Rede, historisches Praesens,"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33.1, 1-12.
- 쉬프린(D. Schiffrin)(1981), "Tense Variation in Narrative," *Language* 57.1, 45-62.
- 스즈키(鈴木泰)(1992), 『古代日本語動詞のテンス アスペクト』 — 源氏物語の分析

一、ひつじ書房。

시부(志部昭平)(1990가), 『諺解三綱行實圖研究』, 東京: 汲古書院。

시부(志部昭平)(1990나), 『諺解三綱行實圖研究』(索引), 東京: 汲古書院。

야콥슨(R.Jacobson)(1971),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in: *Selected Writings* (Mouton), 130-147.

언어학연구실(1960), 『조선어문법』(1),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에리히(V. Ehlich)(1990), “Referential Linking and Interpretation of Tense,”
Journal of pragmatics 14, 57-75.

吳昌命(1995), 『朝鮮前期吏讀의 國語史의 研究』, 檀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인영(1985), 「현대 러시아어의 相(aspect)의 담화기능」 — 배경이론에 대한 再考, 『語學研究』 21.3, 309-330.

이인영(1993), 「소위 “역사적 현재”에 관하여」 —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8, 101-151

이지영(2002), 「서사시제에 대하여」 — 서사의 현재시제를 중심으로, 『朝鮮語研究』 1(東京外大), 147-165.

이지영(2008), 「문법사적 관점에서 본 일제 시기 언어의 몇 문제」, 『한국어학』 40, 59-89.

이토(1993), 「中世 韓國語의 ‘흐느다’와 ‘흐다’에 대하여」, 『국어학 논집』 1(서울대 국문과), 83-93.

이토(1994가), 「中世 韓國語의 ‘흐느다’와 ‘흐다’에 대하여」 — 三綱行實圖의 用例分析, 『朝鮮學報』 151, 1-34.

이토(1994나), 「中世 韩國語 用言 終止形의의 시제에 대하여」 — 월인석보 1, 2 地文의 用例 分析, 『제2회 한국학 환태평양 국제회의 언어학부의 보고요지』。

이토(2001), “关于中世韩语时态与体的范畴” — 《月印释谱》卷一二地文的用例分析, 金健人 主编 金健人 主编 『韩国传统文化·语言文学卷』, 学苑出版社。

이홍식(2003), 「한국어 어미 ‘-더라’와 소설의 발달」, 『텍스트언어학』 14, 167-190.

임홍빈(2009), 「절대문은 왜 세워야 하는가(1)」 — 고영근(2006)에 답함, 『형태론』 9.2, 145-155.

정렬모(1946), 『新編 고등국어문법』, 제일문화사。

- 정병설(1998),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 정병설(2005),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100, 263-297.
- 정항균(2000), 「서사문학의 유형론에 관한 고찰」, 『독일문학』 73, 203-228.
- 정희자(1987), *A Study of the Function and Aspect in Korean Narrative Discourse*,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정희자(1988), "The Function of Tense in Korean Narrative," 『언어』 13.2, 363-402.
- 정희자(1989), "The Function of Tense and Aspect in Korean Narrative,"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407-422.
- 정희자(1994), 「시제와 상의 화용상 선택조건」, 『애산학보』 15, 47-106.
- 정희자(1990), "Reconsideration on Tense in Korean Narrative," 『언어』 15.2, 389-407.
- 정희자(1998), 『담화와 문법』, Pufs.
- 조남현(2004),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 조오스(M. Joos)(1964), *The English Verb: Forms and Meaning*,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趙演鉉(1978가), 「韓國文學半世紀의 動態」, 『新韓國文學全集』 51(語文閣), 15-21.
- 趙演鉉(1978나), 「金東仁의 文學」, 『新韓國文學全集』 2(韓國文學概觀), 語文閣.
- 蔡壩(1990), 『日帝強占期 在滿韓國文學研究』, 깊은샘.
- 카스파리스(C.P. Casparis)(1975), "Tense without time: the Present tense in narration," *Schweizer Anglistischen Arbeiten* 84, Berne: Franke.
- 카에노펠(M. Caenepeel)(1995), "Aspect and Text Structure," *Linguistics* 33.2 (336) 213-53.
- 토도로브(T. Todorov)(1973)/곽광수(역)(1985), 『構造詩學』, 文學과 知性社.
- 프랭스(G. Prince)/崔翹圭(역)(1982), 『서사학』(Narratology), 문학과 지성사.
- 파스칼(L.G. Pascal)(1962), "Tense and novel," *The Modern Language Review* LVII.
- 파스칼(L.G. Pascal)(1965), "The present tense in the Pilgrim's Progress," *The Modern Language Review* Vol. LX 13-16.

- 폴라크(W. Pollak)(1968), “Buchrezension: Linguistik und Literatur, Zu Harald Weinrich, Tempus, Besprochne und erzählte Wel,”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84, 380-480.
- 플라이쉬맨(S. Fleischman)(1990), *Tense and Narrativity*,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하마노우에(1994), 「物語のテクストにおけるテンス・アスペクト・否定」, 『朝鮮學報』 150, 73-129.
- 함부르거(K. Hamburger)(1957/1968), *Die Logik der Dichtung*, Stuttgart: Klett.
- 한재영(1986), 「중세국어의 시제체계에 대한 관견」, 『언어』 11.2, 258-284.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